

2003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개혁주의 목회신학자 박윤선 연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실천신학 전공

이 창 산

# 개혁주의 목회신학자 박윤선 연구

지도교수: 황 성 철

이 논문을 목회학 석사학위(M. Div.)  
청구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1월 28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실천신학 전공

이 창 산

이창산의 목회학 석사(M. Div.) 학위 청구 논문을 인준함

지도교수: 황성철 원

지도교수: 박기택 원

지도교수: 서정원 원

2003년 11월 28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00년 총신대 신학과 졸업논문으로 썼던 「정암 박윤선의 생애와 교훈」의 연속이요 그 열매입니다. 대학 졸업반 때 그 부족한 논문을 지도해주셨을 뿐 아니라 신학의 첫걸음을 떼던 제자에게 대학 2학년 시절부터 졸업할 때까지 3년간 헬라어와 성경해석학, 신약신학을 고생스럽게 가르쳐주시고,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설교하는 법과 본을 보여주신 유상섭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에게서 이 시대의 박윤선을 봅니다. 또한 참으로 내실 있고 유익한 신학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매시간 강의해주시고 인격적으로 관심 가져 주셨던 총신대의 신국원 교수님, 장성민 교수님과 신학대학원의 황성철 교수님, 이상원 교수님, 최홍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들이 계셨기에 7년간의 힘들고 지루한 시간들을 매 학기마다 참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셨던 남편 故 이성균님을 뒤로한 외로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길 애쓰며 지금까지 저와 형님을 바르게 키워주셨고 돌아주시는 어머니 장애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사위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된 목회자가 되기를 항상 기도해주시는 아버지 강성태 장로님과 어머니 이영희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부족한 사람을 귀하게 섬겨주어 제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현숙한 아내 강정화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제가 평생 아끼고 사랑할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저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한 아빠로 만들어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귀한 아들 준서(峻栖)에게 감사합니다. 준서가 한평생 높으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지난 2년간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동역자로 귀하게 보시고 아껴주셨던 정릉중앙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권상현 담임목사님과 신자겸 강도사님, 장영안 전도사님, 최경섭 전도사님께 감사드리며, 김상인 교육부장님과 이원익 부장집사님, 나지혜 선생님, 김승관 선생님, 이승룡 선생님, 문진희 선생님, 이수연 선생님, 송정숙 선생님과 중고등부 제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이 귀한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기다 가겠습니다.

이 모든 감사들을 제 삶에 허락해 주신 분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저의 첫 열매를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 목차

I 서론 : 한국교회의 박윤선 평가 -----	1
1. 주경신학자 : 그의 일면 -----	1
2. 목회신학자 : 그의 진면목 -----	5
II 목회신학자로서의 성장 -----	10
1. 기독교회와의 만남 -----	11
2. 신성중학교 시절 -----	12
3. 송실전문학교 시절 -----	18
4. 평양신학교 시절 -----	22
5.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시절 -----	25
III 목회신학자로서의 사역 -----	28
1. 교회에서의 사역 -----	29
2. 신학교에서의 사역 -----	31
IV 목회신학자로서의 박윤선의 진가 -----	37
1. 진리의 종 -----	37
2. 기도의 사람 -----	44
3. 진실된 인격자 -----	54
4. 통합된 신학자 -----	57
5. 교회의 개혁자 -----	60
V 결론 : 한국교회에서의 박윤선의 가치 -----	71
참고문헌 -----	74

## I 서론 : 한국교회의 박윤선 평가

### 1. 주경신학자 : 그의 일면

한국교회에게 정암(正岩) 박윤선(朴允善, 1905-1988)은 누구인가? 우리는 그를 어떤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국교회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끊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sup>1)</sup>은 한국교회에서 박윤선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특별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껏 이어오는 그의 이러한 특별한 영향력은 그가 한국의 대표적인 개혁주의적 보수교단 신학교들인 고신(1946-60)과 총신(1964-80)<sup>2)</sup>과 합신(1980-88)에서 두루 학문 활동과 목회활동을 했기 때문일 것이고, 그의 대표작으로 인식되고 있는 성경주석 역시 한국교회에 두루 퍼져있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15년 전의 상황이지만 박아론은 박윤선 주석의 대중적인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한국 방방곡곡에서 목회하고 있는 일선교역자들의 서재에 박윤선 목사의 성경주석이 꽂혀 있지 않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 되어 버렸다. 한국교회의 교역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난해한 것들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박윤선 목사의 주

---

1) 그가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합동신학교에서는 지금까지 매년 ‘정암신학강좌’를 열었는데 그 강좌의 많은 부분을 박윤선의 삶과 신학을 조명하는데 바쳤다. 또한 이 외에도 최근에는 기독교신학대학원의 한국교회역사연구소에서도 그에 관한 학술강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 총신에서 16년간의 활동 사이에는 5-6년 정도의 미국 거주생활이 포함되어 있다.

석책들이다. 또 강단에서 증거할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박윤선 목사의 주석책들에 수록되어 있는 설교들을 참고하거나 심지어는 그대로 “사용”하는 일이 예사로 되어 있다(기독교 학술원 1993, 90).

그러나 15년 전 뿐 아니라 최근에도 그의 신약성경 주석들이 녹음테이프로도 제작되어 일부 시각장애인 목회자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했다(기독신문 2002.10.26.). 이처럼 주경신학자로서의 박윤선의 영향력이 한국교회에 넓고 강력하게 퍼져있기에 한 진보주의 신학자가 인정한다로 실로 “개혁주의 신학을 위해서 주경사업에 40년을 몸 바쳐 온 그의 삶은 곧 한국 정통보수주의 신학의 반세기기를 대표하는 역사 자체”일 것이다(한승홍 1993.1, 195).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학문적인 발전이 거듭되고 있는 오늘날의 성경신학계에서 박윤선의 학문적 열매는 이미 몇몇 비평에 직면해 왔다. 박윤선의 시편주석에 나타난 기독교론적 해석에 대해 연구한 김정우는 박윤선이 “‘예언’과 ‘예표’ 사이에 명료한 구별을 두지 않고 두 단어를 동의어 내지는 유사어로 사용을 함으로써 개념상의 혼란을 가끔 야기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시편 2편을 “직접적 메시아 시라고 주장하는 행스텐버거와 간접적 메시아 시라고 하는 델리취의 방법론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고, 결론적으로 “박윤선의 시편에 대한 기독교론적 해석은 ... 어떤 이론적인 토대를 따라 된 것이 아니므로 어떤 시를 기독교론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시를 기독교론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하는 지에 대한 기준을 명백히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합신출판부 1995, 144-47). 시편에 관계된 박윤선의 주경신학이 전문성과 주체성에 있어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인데, 권성수 역시 비슷한 평가를 내린다. 그는 박윤선에 관한 많은 장점을 소개하면서도 박윤선의 신학에서 “주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음을 아

쉬워”하고 있다(합신출판부 1995, 193). 또한 박윤선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각권의 특성을 살려 전문적으로 주석하지 않고 “조화의 원리”에 의해 「공관복음」 단권 주석으로 집필한 것도 권성수의 아쉬움이었다(합신출판부 1995, 214). 총신에서 박윤선에 대한 가장 강한 비판자는 아마도 정훈택인 것 같다. 정훈택은 박윤선의 공관복음에서 그의 “행위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서술한 후에 “복음에서 수록되어 있는 예수의 말씀은 이상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지시한다.”며 복음서의 행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 박윤선이 전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다고 비난한다(정훈택 1993, 17-18).

박윤선에 대한 그의 후배들의 이러한 비평이 그를 존경하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편치 않은 감정을 자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의 저서들을 몇 권 직접 펼쳐보면 이러한 비평들이 어느 정도는 타당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일례로 박윤선의 단행본 저서 중 하나인 「성경신학」을 보면, 이 책은 그 자신의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H. 리델보스, G. 보스 같은 학자들의 저서들에서 많이 참고한 책이며, 그래서 그 자신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편저(編著)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박윤선 1971, 3). 박윤선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주석들에서도 이러한 약점이 드러난다. 일례로 창세기 30:6의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라는 구절을 해석하면서, “루터(Luther)는 이 말씀을 라헬의 찬송으로 보고, 자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함은 그의 신앙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칼빈(Calvin)은, 라헬의 이 말을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하였다.”라고 말하고 끝내버린다(박윤선 1968, 321-22). 칼빈과 루터의 해석 중에 어느 것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반세기 동안 한국교회의



사랑을 받았던 그의 주석과 신학저술에는 이와 같은 전문성과 독창성이 결여된 아쉬운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고신의 오병세 역시 박윤선 주석에 대하여 이와 비슷한 평가를 내린다.

박 박사는 그의 평생의 작업으로 그 주석출판을 위해 일념으로 노력하여 신구약 전부를 주석해낼 수 있었다. ... 그러나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주석의 어떤 부분에서는 깊이 있게 취급이 되지 못하고 찾아보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없거나 피상적으로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총론이나 역사적인 면에 역점을 둘 기회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기도 한다(기독교 학술원 1993, 82).

결론적으로 필자는 박윤선의 생애를 최초로 심도 있게 연구한 서영일의 박윤선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박윤선과 그의 사상에 많은 약점들이 있음에 틀림없다.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남에 대하여 비판적인 말을 하기 싫어하는 그의 인격과 독창적인 사고의 능력을 달가워하지 않는 전통적이고 유교적인 훈련이 결합되어 이런 약점을 낳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그가 쓰고 가르친 대부분의 내용들은 웨스트민스터의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들과 책에서 얻은 지식을 조심스럽게 재 진술한 것일 뿐이다. 거기에 더하여 그가 배운 내용들을 그가 소화하여 자기 것으로 내면화하였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서영일 2000, 393).

그렇다면, 성경신학자로서 이러한 전문성과 독창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박윤선이 한국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과연 지난 세기 그의 그늘 밑에서 안식처를 찾았던 한국 교회가 시대의 변화에 상관없이 여전히 그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겠는가? 아직도 우리는 박윤선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가? 단순히 그는 박형룡과 함께 혼란스러웠던 초기 한국교회를 굳건하게 세웠고 지켜주었다던 과거의 영웅적 인물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심은 박윤선의 모습을 단순한 주경신학자로 보는 기존의 일차원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그를 한국교회의 신앙과 삶 전반을 품에 안고 신학연구과 경건생활에 정진했던 참된 목회신학자로 바라볼 때 쉽게 해소된다.<sup>3)</sup>

## 2. 목회신학자 : 그의 진면목

박윤선은 단순히 주경신학자가 아니었다. 물론 그는 말씀의 기근이 심각했던 한국교회의 청년기에 한국인 최초로 성경 66권의 주석을 내놓은 한국의 대표적인 주경신학자였다. 그러나 손쉽게

---

3) 박윤선을 목회신학자로 보기 위해서는 목회신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황성철은 목회신학을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한다 (황성철 2002, 1-2). 첫째로, 목회신학의 정의이다. “목회신학은 교회의 활동과 목회자의 모든 직무와 기능을 취급하는 신학의 한 분야이다. ... 목사직과 그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정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목회 실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론중심의 신학이라기보다는 활동중심의 신학이다.” 둘째로, 목회신학과 실천신학의 관계이다. “실천신학의 특수한 한 형태로서의 목회신학은 실천신학 가족 내에서 신학 과정의 여러 분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들과 실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목회신학은 실천신학의 제 분야를 세부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포괄적인 이론과 실천신학의 각 분야와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실천신학의 각 분야를 취급하는 것이다.”

어느 한 신학 분과의 전문가로만 보는 관점으로는 박윤선의 진면목을 다 볼 수 없다. 그는 주경신학자이면서 또한 전문적인 교의신학자였다. 그래서 송실대의 김영한은 “박윤선은 주경 신학자였으나 교의학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한다(기독교 학술원 1993, 103). 교의신학자로서의 그의 작품 중 한 권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이다. G. I. 윌리엄슨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단순히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책은 비록 역서임에도 불구하고 교의신학에 대한 그만의 안목이 곳곳에 드러나 있는 그의 초보적인 교의신학 작품으로 볼 수 있다.<sup>4)</sup> 그리고 최근에는 「개혁주의 교리학」이라는 이름으로 700쪽이 넘는 본격적인 교의신학 작품이 그의 유고작으로 출판되었다. 박윤선은 부산고려신학교 초창기에 주경신학과 함께 조직신학을 가르쳤었고 그 후 총신에 와서도 총신대학 4학년을 대상으로 ‘동양 철학과 기독교’와 ‘서양 철학과 기독교’를 가르쳤었는데, 이 저서는 박윤선이 책 출판을 염두에 두고 계속적으로 증보해 나간 그 때의 원고들을 합신의 조직신학 교수 김재성이 마침내 책으로 묶은 것이다(박윤선 2003, 751). 김재성은 박윤선의 이 작품의 내용이 “세계 어느 신학자들보다 더 선명하게 성경적이며, 오랜 연구를 통해서 개혁주의 전통과 신앙의 정수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박윤선 2003, 752). 「개혁주의 교리학」의 출판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교의신학자로서의 박윤선의 면모가 한국교회에 더욱 분명히 인식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주경신학자이자 교의신학자였던 박윤선은 또한 실천신학의 한 분과인 교회헌법학자

---

4) 단순한 번역이 아닌 것은 크로스헤이더(F. W. Grosheide), 바빙크(H. Bavinck), 스킬더(K. Schilder)와 같은 네델란드 개혁신학자들의 사상까지 동원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해설해 나간 데서도 알 수 있다(박윤선 1989, 8; 36; 51; 98; 144 등.).

로서의 면모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그의 책 「헌법주석」을 통해 잘 드러난다. 이 책에서 박윤선은 장로회 정치와 예배모범에 관한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해설과 함께 교회정치와 목회에 관한 많은 참고 자료들과 그와 관계된 설교들을 실어 놓았다. 또한 요즘에도 논의될 가치가 있는 “장로의 실무 기간”이나 “여교역자와 강단문제”와 같은 특별 참고들을 포함하고 있다 (박윤선 1983[1], 75; 104). 이처럼 한 명의 신학자로서의 박윤선도 어느 한 면만으로 다 파악할 수 없다. 박윤선의 일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능력 있는 설교자였다. 설교자로서의 박윤선에 대한 그의 넷째 아들 박성은의 소개는 다음과 같다.

박윤선 목사는 설교하기를 사모했다. 복음 사역을 위해 안수 받은 후 그가 설교요청을 거절한 적은 거의 없었다. 능력 있는 설교로 인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언제나 그를 자극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능력 있고 영향력 있게 복음이 선포되는 목회사역이야말로 “신학의 최고 목표”라고 믿었으며, 따라서 종종 그는 위대한 설교자들을 동경하고 우러러보았다. 비록 그가 “설교자로서 구비해야 할 웅변술”과 “언어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아쉬워하곤 했다 할지라도 분명 그의 설교는 그것을 들은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켰으며,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하던 영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자연히, 그의 설교는 그 자신들이 설교하기를 갈망하던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되었다(Justin Sung-Un Park [n.d.]).

주경신학자, 교의신학자, 실천신학자, 그리고 탁월한 설교자인 박윤선을 우리는 어떤 인물로 평가할 수 있을까? 게다가 경건의 능력과 인격까지도 한국교회에서 계속 칭송되고 있는 그의 진정한 통전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위의 인용문의

“능력 있고 영향력 있게 복음이 선포되는 목회사역이야 말로 ‘신학의 최고 목표’라고 믿었”다는 표현에 있다. 그렇다. “‘나의 신학’이란 주제가 광범위한 것이 아니고, 설교와 관련된 범위의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박윤선 1986.5, 4).”라고 말했던 박윤선의 모든 신학과 삶은 “목회사역”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주경신학자로서의 박윤선의 열매인 성경주석 역시 철저하게 목회 현장을 위한 주석으로서 집필되었다.<sup>5)</sup> 만주 봉천신학교를 사임한 직후인 1944년 4월부터 독자적으로 집필하기 시작한 성경주석은(正岩記念論叢編纂委. 1987, 11)<sup>6)</sup>, 성경에 대한 바른 안목이 절실했던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한 목적이었다.<sup>7)</sup> 그래서 그의 주석은 학문정보다는 조국교회의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돕는 실용성에 초점 맞추어져 있었다.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비롯해 거의 모든 신학분과를 섭렵한 학자였으며 경건과 인격에 있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박윤선은 전문적인 목회신학자로서 한국교회를 섬겼다.

필자는 제대 후 대학 2학년 복학을 앞둔 1997년부터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가 그의 모든 삶과 신학을 성도

---

5) “주석을 하면서 종종 풀기 어려운 난제를 만나면 ‘이 구절에서도 남들을 가르칠 만한 진리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 그곳에도 설교할 만한 단맛 있는 진리가 쏟아져 나오곤 했다.”(박윤선 1980.5.24.); “그의 주석은 목회적인 향취를 풍기고 있으며, 또한 목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서영일 2000, 26).

6) 박윤선의 최초의 성경주석 작업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유학 1년 후인 1938년에 집필하기 시작한 표준주석 시리즈의 「고린도 후서」 주석이었다.

7) “한국 교회에는 그 때까지 성경 주석이나 성경 해석에 필요한 문헌이 빈핍했으니만큼 부족한 나로서도 주석 집필에 뜻을 가지게 된 것이다.”(박윤선 1997, 90).

들의 개인적이고 공동체적 삶, 즉 교회의 실존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비록 어느 한 신학분과에만 한정된 신학자로서의 박윤선은 오늘날의 신학계에 있어서 동시대적인 전문성과 독창성을 탁월하게 가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한국의 상황에서 자신의 모든 신학과 삶을 교회의 목양에 쏟아 부었던 그의 성숙한 목회신학은 이전세기처럼 21세기에 도 한국교회에 건전하고 견고한 반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본 연구를 시작했다. 박윤선을 단순히 외국의 개혁주의 신학을 재 진술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50년 전의 구식 주경신학자로 보는 기존의 일차원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그를 한국의 교회 상황에서 독창적으로 개혁주의 목회신학을 정립해 나간 탁월한 목회신학자로 보는 것이다. 신학이론과 실천이 경건과 인격 안에서 통합되어 성실하게 조국교회를 섬긴 목회신학자로 박윤선을 재평가할 때 그의 진정한 가치는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필자의 가설이 타당하다면 지난 세기에 박윤선의 그늘 밑에서 안식처를 찾았던 한국 교회는 오늘과 내일도 여전히 그 탁월한 목회신학자의 그늘 밑에 쉬면서 그 열매로 자신의 주린 배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sup>8)</sup>

이러한 박윤선의 목회신학자로서의 진면목을 소개하기 위해 필자는 먼저 한 사람의 삶과 사상의 방향과 뼈대가 형성되는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박윤선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그의 목회신학자로

---

8) 황성철은 목회신학의 부재로 인한 한국교회의 목회적 위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황성철 2000, 13-14): “... 목회 전반에 걸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목회자들은 거의 모든 교리적 지식을 배제한 채 실용주의적 추론들에 의해 좌우되며 그로 인한 목회적 결과들이 오늘의 목회 현장에 만연되어 있다. ... 오늘날의 목회현장에는 그릇된 목회사상인 실용주의 목회철학과 세속적 목회경영이라는 두 영향력이 깊숙이 침투해 있다.”

서의 예비적인 삶을 살필 것이다(II장): 기독교회와의 첫 만남의 때부터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유학시절까지 박윤선의 삶은 줄곧 교회를 섬기기 위한 학문과 신앙과 인격의 연단 기간이었다.

다음으로, 그러한 성장과정을 통해 그가 지교회와 신학교에서 어떻게 한국교회를 목회신학자로서 섬겨 나갔는지를 역사적으로 개관해 볼 것이다(III장): 목회신학자로서 박윤선은 교회와 신학교 두 현장에서 학문적인 목회와 목양적인 학문을 동시에 수행해 나갔다.

이어서 본 논고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서, 이전까지의 검토를 바탕으로 오늘날에도 계속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할 목회신학자로서의 박윤선의 진가들이 무엇인지 밝힐 것이다(IV장): 목회신학자로서의 박윤선의 진면목은 목회자로서의 그의 자질에 관계되는 진가들과 그의 사역에 해당되는 진가들로 나누어 다섯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것이고, 이것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그의 삶과 가르침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한국교회의 개혁되어야 할 현실들과 관련된 최근의 유감스러운 사건들도 인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더욱 부각되어야 할 한국교회에서의 박윤선의 가치를 주장하며 부족하게나마 본 연구를 끝맺을 것이다(V장): 박윤선은 한국교회의 진정한 목회신학자로서 시대의 간격을 넘어 조국교회에서 그 삶과 사역이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계승되어야 할 인물이다.

## II 목회신학자로서의 성장

## 1. 기독교회와의 만남

박윤선은 일본에 의해 주권을 짓밟히고 있던 대한제국의 평안북도 철산군 백량면 장평동 땅에서 1905년 음력 12월 11일에 태어났다(박윤선 1997, 35; 257). 1885년 4월 5일에 내한한 미북장로회의 언더우드와 미북감리회의 아펜젤러를 최초의 본격적인 선교사로 볼 때, 박윤선의 출생은 선교사들이 입국한지 20년이나 지난 시점이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선교사들의 본격적인 선교활동이 싹트던 때와 동일하게 시작되었다. 장로교의 4개 선교부와 감리교의 2개 선교부가 「한국복음주의선교회연합공의회」라는 협의체를 결성한 때가 1905년 9월 11일이었고, 공인역본 「신약전서」가 1906년에, 구약 전체 번역은 1910년에 완료되었으며, 장·감 연합으로 「찬송가」가 발행된 때가 1908년이었기 때문이다(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89, 201-209). 이처럼 한국교회의 성장기와 함께 성장해 갔던 박윤선은 그의 나이 17세 때 한국교회와 처음으로 조우하게 된다.

우리 집은 유교 가풍이었고 우리 마을에는 예배당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인지 나는 스스로 동문동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다. 이때의 나의 나이는 17 세였고, 한국 선교가 시작된 지 39년 후이다.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오 리(약6km) 밖에 있는 예배당에 주일마다 걸어서 갔다. 그 때 동문교회의 설교자는 그 교회 장로였고, 나는 설교를 듣고도 깨닫지는 못하면서 계속 다녔다. 아마도 인생의 공허감 때문에 신앙을 가져 보려는 행위였다고 생각된다(박윤선 1997, 36).

목회신학자로서의 박윤선의 교회생활은 이렇게 조금은 불안정하



게 시작되었다. 그가 이렇게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예배는 매주 드렸지만, “사실상 복음을 깨닫고 믿은 것은 아니고 그냥 깨달음 없이 설교를 들었던 것뿐”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설교를 잘했는지 모를 정도”였다(박윤선 1980.3.22.). 그리고 이러한 어색한 첫 만남은 1년 뒤 그의 나이 18세 때 미션스쿨이었던 대동학교에 진학 한 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는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였다. 하지만, 교회와의 첫 만남 시절의 이러한 그의 어색한 교회생활의 경험은 후에 교회 안에 있는 영적 미숙아들을 목양하는 귀한 목회신학적 통찰이 되었다.

학교에서는 아침마다 경건회 시간이 있었고, 주일에는 교실에서 예배하였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반사로 봉사하셨다. 나는 선생님의 설교를 열심히 들었으나 아직은 깨달음이 없었다. 모든 학생들이 예배시간과 성경 공부시간에 다 같이 참석하였는데, 나는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나의 경험으로 보아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면서도 교회에 출입하는 형제들을 동정하게 되고,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아 기다리며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남들의 신앙에 대하여 너무 조급하게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박윤선 1997, 37).

교회와의 어색한 첫 만남은 그 영적 방황 속에서도 신성중학교 시절까지 이어졌고, 신성중학교에서 그의 신앙은 비로소 견고한 신앙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된다.

## 2. 신성중학교 시절

대동학교를 졸업한 한 후에 그는 오산중학교 2학년을 거쳐 20세가 되던 그 다음 해(1924년)에 선천읍에 있던 신성중학교 3학년에 편입하게 되었다(박윤선 1980.3.29.). 신성중학교는 서당교육을 받은 청년들과 소학교 교육을 마친 소년들에게 고급학교에 진학할 길을 열어주기 위해 선천지역의 애국적인 교회 기독교자들이 세웠고, 후에 선교사들에게 위임되어 미션스쿨로 성장하였다(信聖校史編纂委 1980, 4-5). 한국 교회지도자들에 의해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터가 닦여졌을 뿐 아니라, 선교사들에 의해 본격적인 기독교 학교로 세워진 신성중학이었기에 이곳에서의 신앙교육은 매우 철저하였다.

매일아침 학과수업 전 강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일과를 시작하였으며 성경과목을 중심한 학교교육으로 신앙지도의 애국적인 인격도치에 중점을 두었다. 일요일과 수요일 오후에는 교회당에 나아가 예배에 참석하며, 나아가서는 거의 전교생이 교회사업으로 각 교회 주일학교 반사로 또는 성가대에도 열의로서 참가하는 등 교회에 대한 봉사활동도 매우 큰 것이다. 그리고 연례행사의 하나로 춘추에 걸쳐 대대적인 사경회를 개최하고 성서의 진리를 탐구한 것이다. 때로는 특별집회를 개최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중심으로 하고 인격을 갖추어가는 의의 깊은 수양회이다. 특히 특별집회는 한국의 유명한 교회지도자와 민족의 선각자와 세계종교계의 지명인사 등 각계의 명사들의 강연회이다. 이 강연회는 학생은 물론 선천의 온 시민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으며 민족의 얼을 일깨워 주었다(信聖校史編纂委 1980, 50-51).

하나님은 이 신성중학교 시절을 통해 박윤선에게 몇 가지 큰 선물을 주셨다.

첫째로, 박윤선은 신성중학교 재학 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게 되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었을 때, “마음 깊이에서 솟아오르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더 이상의 의심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 무렵 내 생애에 잇을 수 없는 신앙 체험을 하였다. 어느 날 나는 학교 가까이 수청고개 밑에 있는 시냇가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나의 심중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하고 자문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즉시로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같이 솟아오른 것은, ‘네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니라’ 하는 분명한 대답이었다. 나는 그 때에 놀랄 정도로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고 의심은 깨끗이 사라졌다. 그 후로는 성경을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박윤선 1997, 44).

성경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놀라울 정도의 확신은 그의 일생 계속되어, 그 자신을 철저하게 성경을 신뢰하는 칼빈주의자로 만들어 주었다(박윤선 1980.3.29.).<sup>9)</sup>

둘째로, 이러한 거듭남과 성경에 대한 확신 가운데 박윤선의 신

---

9) 그러므로 박윤선이 후에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유학가기 전에는 “전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론적으로만 배웠을 뿐 가슴에 몽클하게 와 닿고, 뜨겁게 타오르는 신앙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신앙 태도는 거의 이신론적(理神論的) 신학 입장에서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미국에서 거듭나게 된 박윤선”이라고 말하는 한승홍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승홍 1993.1, 206-207).

양은 그 열매로서 성실한 기도생활, 공부생활, 전도생활로 드러나게 되었다. 중학교 때부터 박윤선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김진홍은 신성중학시절 박윤선이 삶과 신앙이 모두 성실하였음을 증언하고 있다.

그의 손에는 항상 책이 있었으며, 캄캄한 이른 새벽에 소를 데리고 나아가 풀을 뜯게 하고, 그는 풀밭에 앉아 기도를 하며, 언제나 새벽기도에 힘을 썼었다. 그러다가 해가 떠올라 밝기 시작하면 그는 주머니에서 단어집을 꺼내어 외우고 그리고 기숙사에 돌아와 세수를 하고 학교에 가려하면 그 때서야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 등교를 서두르곤 하였다(최미희 1984, 11)<sup>10</sup>).

“공부하다가 죽어도 좋다”, “주의 일을 할 때 피곤해 질만큼 일하지 않는 것은 수고하는 일꾼이 아니다” 등의 잠언은(합신출판부 1995, 276; 271) 신성중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그의 이러한 성실한 삶이 그 후로도 계속된 그의 인격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교훈이었다. 그는 방학 때만 되면 학교 친구들과 함께 복음 증거에 힘썼다. 중생의 은혜와 성경에 대한 확신 가운데 성실한 삶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던 박윤선의 신앙은 이제 일본 경찰의 압박과 불신가정의 부담을 지고서도 학교 전도대 대장으로 활동할 정도로 매우 힘 있게 성장하고 있었다.

방학이 되면 학우들과 함께 전도대를 조직하고 내가 대장이 되어 지방으로 순회하면서 전도 활동을 했는데, 그 때마다 일본경찰의 주목과 감시를 계속 받았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반대가 대단

---

10) 타이프로 쳐진 최미희의 논문은 쪽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기에 그녀의 논문의 서언을 1쪽으로 잡아 필자가 임의로 쪽수를 넣었다.

하였다(박윤선 1997, 44).

셋째로, 중생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성실히 공부하며 전도했던 박윤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건전한 비판적 안목까지 생기게 되었다. 신성중학교에서 그가 집중하여 설교를 듣고 있던 어떤 예배시간이었다: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때의 설교가 한마디 생각한다. 박평흠 선생님이 설교하는데 사도행전 3장 1~10절까지 읽고 설교한 내용 가운데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고 한 말씀(행3:6)을 풀이하기를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곧 베드로는 참으로 천국만 생각하고 이 세상은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렇기에 본문 말씀의 순서로 봐서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된 것이다. 보통으로는 금과 은이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여기서 은과 금이라고 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는 돈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였다. 나는 그때에 그런 해석이 본문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다. 그런 해석은 너무 억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을 보면 나는 그때까지도 성경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으나 성경 해석에 대하여 주의 깊이 생각을 기울였던 것으로 느껴진다(박윤선 1980.3.29.).

말씀에 대해 자라가는 그의 이러한 건전한 비판적 안목은 당시 한국 최고의 목회자요 부흥사였던 길선주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도 드러났다. 세대주의적인 길선주의 계시록 설교가 자신의 마음에 불어넣었던 허전함을 박윤선은 다음과 같이 겸손하게 표현한다.

… 부흥가이신 길선주(吉善宙) 목사님께서 신성중학교에 오셔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며칠 동안 사경회를 인도하셨다. 그의 계시록 풀이는 세대주의적이었는데 내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다. 그의 해석 방향은 역사적 사건에 계시록을 맞추는 데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이겠는가”하는 논설에서 근대의 몇몇 인물들을 꼽았는데 그 중에 이탈리아의 못소리니도 들어 있었다. 내가 그의 계시록 강해를 들어본 결과는 왜 그런지 허전한 느낌이었다. 요한계시록에는 무엇인가 깊고 좋은 내용이 있을 터인데 강사 목사님께서 이 책의 깊은 뜻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길선주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세우신 대진도자였음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몫을 다 할 수 없었음도 안다(박윤선 1997, 43).

이처럼 박윤선이 “성경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많았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합당치 않는 해석(역해)을 곧장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대한 예리한 시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신성중학 5학년 때(1926년) 성경담당 교사로 부임한 김선두 목사와 같은 뛰어난 성경교사들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김선두)가 신성학교 성경담당 교사로 부임한 것은 1926년, 이 나라를 병탄한 일제 식민지 무단정치가 기승을 부리던 무렵으로 본교에 재직하던 1928년까지 당시의 교장 成嘉倫(MR. Clarence Hoffman)선교사를 보좌하여 대리 시무를 하는 한편 선천 남교회에서 목회도 하며 교계발전에 공헌하는가 하면 특히 성경교육으로 학생들의 심령교육에 전력하였다. 그는 그의 정통한 성경교리로 교직원과 학생들 사이에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로서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성경강론 때면 성경의 장·절수까지 일일이 지적함으로써 교장(敎場)을 감동케 하였으며 철두철미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의 설교는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장대를 압도하는 훌륭한 것이었다(信聖校史編纂委 1980, 146-47).<sup>11)</sup>

대동학교 시절에는 단지 교회 안을 맴돌던 신앙적 주변인에 불과했던 박윤선은 신성중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분명한 신앙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태어났고, 경건생활과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구원받은 자의 성화의 삶으로 나아갔으며, 불신 부모와 일본 경찰의 압력 속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자라났다. 또한 김선두 목사와 같은 좋은 스승들 밑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바른 안목도 가지게 되었다. 신성중학교에서 기초가 놓여진 박윤선의 경건과 삶과 전도의 성실함은 이후 더욱 견고해지면서 서서히 그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한다.

### 3. 숭실전문학교 시절

신성중학교를 통해 구원받은 성실한 신자요 전도자요 성경학도로서 기초적인 준비를 마친 박윤선은 1927년, 그의 나이 23세 때 신성중학교를 졸업하고(正岩記念論叢編纂委 1987, 11), 평양에 있던 숭실전문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숭실 재학 초기에 박윤선은 영심환(靈心丸)을 팔러 다니는 고학생의 신분으로 살아갔는데(최미희 1984, 15),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했다.

---

11) 1926년에 신성중학교에 부임하기 전에 그는 숭실중학교, 숭실전문대학, 그리고 평양신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1918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7대 총회장으로 섬겼으며, 1919년에는 독립만세 시위에 나섰다. 옥로를 치렀다. 일개 중학교에서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이러한 탁월한 인물이 교수하고 있었다는 것은 박윤선이 재학 중이던 당시 신성중학교의 높은 신앙교육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약을 팔려고 이 집 저 집을 다닌 적이 있었다. 그 후에 좋은 일자리가 생겼다. 마우리 선교사(모이리 선교사)의 주선으로 평양 서기산 밑에 있는 관영 철도 호텔의 종업원들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일이었다. 첫날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니 그 종업원들이 영어회화 정도가 오히려 나보다 우수한 것같이 느껴졌다. 나는 이때까지 책으로 배웠는데 그들은 매일 영국과 미국에서 오는 손님들과 직접 회화를 하던 처지였다. 그래서 나는 마음에 근심이 생겨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근심이 생겼다. 그러나 나는 이것도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서 밤마다(깊은 밤중에) 서문밖 교회로 가서 고요한 방에 들어가 이 문제로 기도를 드렸다. 이 일에 있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였다. 내가 철도 호텔에서(일본말로 야나기야 호텔) 종업원들을 가르칠 때마다 이상하게도 말이 잘 되어지고 영어 단어와 낱말도 잘 생각이 나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박윤선 1980.4.5.).

이러한 성실한 기도생활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그의 송실전문학교 재학 시절동안 계속 이어졌다. 개인기도로 그쳤던 신성중학 시절과는 달리 이제 그는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공동체적인 기도훈련에 매진했다.

송실전문학교 시절에도 나는 신앙운동에 열중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기도 운동에 몇몇 동지(이유탉, 송영길, 김철훈, 박기환, 방지일, 김진홍)들과 함께 모란봉 뒤 숲 속에서 기도하곤 하였다. 우리가 너무 일찍 일어나 송실전문학교에서 떠나 모란봉으로 갔기 때문에 학생들은 우리를 가리켜 “조기부대”라고 별명을 붙였다. 그때나 개인으로 말하면 기도에 극히 열중했기 때문에 기도에 열중하면 병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말이 끊임없이 나왔으며 또 그 말이 매우 힘이 있었다(박윤선 1980.4.5.).



당시 正岩은 기도에 맛을 보기 시작하였다. 숲 속에서 기도에 열중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주변에 있는 풀을 손으로 뽑곤 하였는데 날이 샌 후 주위를 살펴보면 무성했던 풀들이 모두 뽑혀 있곤 하였다(기독교 학술원 1993, 12).

이러한 개인적인 경건생활과 숭실전문학교에서 배운 기독교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박윤선은 “방학 때마다” 복음증거에 힘을 쏟았다.<sup>12)</sup> 숭실전문학교가 (여름)방학 때마다 전도대를 조직하여 각 처로 나가 전도에 앞장선 것은 1909~1911년에 초교과적으로 시행된 백만구령운동(百萬救靈運動)이 일어날 즈음부터였다(송전80년사편찬위 1979, 231). 전도여행에서 박윤선은 설교사역을 맡게 되었다.

송전 시대에도 나는 방학 때마다 학생회의 임원을 맡아 전도 대원으로 먼 지방에 가서 수개월 동안 순회하면서 전도 강연을 하였다. 이 전도대에 나는 설교자로서 가게 되었고 다른 학생들은 악대로 동반을 하곤 했다. ... 우리의 전도여행은 봉천을 중심으로 하여 개원, 무순 기타 중요 도시들과 농촌 여러 지역을 순회하였다. ... 우리들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늘나라에 충성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박윤선 1980.4.5.).

송전 시절동안 박윤선의 예비 목자로서의 삶은 단지 기도회 인도나 전도대 인솔로 그치지 않는다. 이제 그는 그의 생애 최초의 목회사역에 뛰어들게 된다.

---

12) 서영일은, “방학 때마다” 했던 박윤선의 전도활동이 숭실전문학교 시절에 ‘예닐곱 차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았는데(서영일 2000, 71), 박윤선이 다닐 당시의 숭실전문학교는 오직 하계 전도대만 파송하였기에(송전80년사편찬위 1979, 243-45), 모두 네 차례였을 것이다.

나는 기도와 전도의 은혜를 받아 열심히 나가는 가운데 4학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일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송전에서 공부하는 4년 동안, 나는 모란봉 뒷동리에 있는 가현교회를 맡아서 주일마다 설교와 교우들의 가정을 심방하는 일을 하였다(물론, 무보수로 봉사한 것임)(박윤선 1997, 48).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의 젖과 경건의 능력으로 무럭무럭 자라난 박윤선은 이제 주님의 교회를 목회하며 섬길 정도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있었다. 결국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헌신하게 만들었던 대학 4년간의 목회를 하면서, 그는 비록 성경을 신학적으로 체계 있게 가르치지는 못했지만, 당시 이미 한국교회에 침투해 있던 자유주의나 인본주의적인 성경해석을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때의 나의 설교는 그 내용이 신학적 체계로 짜여지지는 못했지만, 그저 청년의 열정으로 쏟는 성경 선포였다고 생각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때도 나는 자유주의를 배척하는 성경관을 가졌던 것이 기억난다. 어느 주일에 송전 선배가 가현교회에 와서 설교하였는데, 그가 “성령의 불”을 해석하면서 그것은 ‘신자의 열심’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나는 그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한 번은 어떤 설교자가 “영생”을 설명하면서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자자손손 계대(繼代)해 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이런 해석도 배척하였다. 위의 두 가지 잘못된 말을 보더라도 이미 그 시대에 한국 교계 설교자들 가운데 자유주의 또는 인본주의 사상이 침투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박윤선 1997, 48).

이 가현 교회에서의 목회사역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었다. 박윤선이 이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의 전도를 받고 신자가 된 사람

이 1984년 현재 신림동 장로교회의 장로로 시무하고 있는 박태암이다(최미희 1984, 16). 박윤선의 최초의 목회지였던 이 가현교회에서의 목회경험은 한평생 지속된 박윤선의 목회신학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나는 무보수로 일심전력하여 가현교회를 봉사하였으며, 보수 같은 것은 생각해 본 것이 없다. 그 봉사가 나로 하여금 후일 목회의 심리를 가지게 하는 데 큰 유익을 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금보다 귀한 것이다. 나는 신학교수로서 목회자의 심리로 학생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회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들을 양성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에 나는 후일에 신학교수를 하는 동안에도 목회도 겸비하면서 주님을 섬겨 왔다(최미희 1984, 17).

송실전문학교에서의 신앙체험과 공동체 기도활동, 그리고 가현교회에서의 최초의 목회활동은 청년의 황금기에 들어선 박윤선의 삶을 더욱더 교회 공동체의 신앙과 삶에 집중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교회를 지향한 지금까지의 그의 아마추어적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더욱 더 예리하게 준비시키는 마지막 연단과정이었다. 목회 지향적 신학교였던 평양신학교와 학문적으로 당시 최고의 개혁주의 신학교 중 하나였던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의 공부를 통해 박윤선은 한국교회의 목회신학자로 배출될 것이다.

#### 4. 평양신학교 시절

박윤선은 그의 나이 27세이던 1931년 3월에 송실전문학교 문과

를 졸업하고<sup>13)</sup> 그해 4월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했다(信聖校史編纂委 1980, 453). 그의 회고에 의하면(박윤선 1997, 51-55) 박윤선의 재학 당시 평양신학교의 교수진은 마포삼열(S. A. Moffett), 라부열(Stacy. L. Roberts), 이울서(W. D. Reynolds), 업아력(A. F. Bobb), 콕안련(Charles A. Clark), 왕길지(G. Engels) 선교사와 남궁혁, 이성휘, 박형룡이었다. 이들 가운데 특별히 박윤선은 왕길지 선교사를 통해 매우 엄격하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웠고, 콕안련 선교사를 통해서는 목회자로서의 귀한 통찰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왕길지 교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교수로서 매우 엄격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 덕에 원어학을 연구하는 학생들(보통 약 10여명 연구함)에게 유익을 많이 주었다. 그는 엄격한 교수였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의 과목을 힘써 공부하게 되었다(박윤선 1980.4.12.)

콕안련(郭安連, Charles A. Clark) 교수는 실천신학을 담당하시고, 설교학, 목회학, 종교교육 등 여러 과목들을 가르치셨다. 그는 열정가이고 근면하셨다. … 그는 자극성 있는 표현으로 종종 학생들을 깨우쳤다. 내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그의 교훈을 두어가지 소개한다. “목사는 유리집에서 삽니다.” 이 말은, 교우들이나 불신자들이 목사의 생활까지도 자세히 훑어보고 있다는 것이다. “목사는 주일마다 새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목사는 기도를 힘쓰고 성경 연구도 힘써서 주일마다 강단에 나설 때에는 교우들에게 전보다 더 새롭고 영적인 사람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

13) 「敬虔과 學問」과 「성경과 나의 생애」에는 “송실전문학교 영문과”를 졸업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당시 송실전문학교에는 “영문과”라는 구체적인 학부가 존재하지 않았다(송전80년사편찬위 1979, 142).

이다(박윤선 1997, 54).

그러나 성경 원어와 목회신학을 제외하면 평양신학교에서 배운 여러 신학들과 그것의 교수 방법은 개혁주의 신학의 후에 박윤선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신학교가 개혁주의(Reformed) 신학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명확하지 못하였다. 나는 신학교 재학 중에 “칼빈주의”(Calvinism)란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으며, 교수들로부터 “성경신학”이란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성경신학이 없었던 그 시대에 교리들을 성경적으로 단맛 있게 가르쳤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신학교의 교육이 순수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비판을 경유하지 못한 주입식 교육이어서 그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물론 교수진이 성경의 권위를 칼빈주의적으로 믿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 때의 신학생들이 교수들로부터 근본주의를 받으면서 그들이 칼빈주의 차원에서 신학을 해득하지는 못하였다(박윤선 1997, 55-56).<sup>14)</sup>

성경원어연구와 목회신학에 많은 진보가 있었던 평양신학교 시절동안도 박윤선은 계속 중학교 사감일과 전도사 사역을 통해 목양사역에 전념했다.

먼저, 신학교 3학년 재학 중일 때 그는 승실중학교 학생들을 심방하는 중학교 사감 일을 맡아 신학교 수업을 마친 후 평양 온 시내를 걸어 다니며 문제학생들을 상담하는 힘든 사역을 하였고, 그

---

14) 평양신학교와 그 교수들에 대한 그의 이러한 비판을 두고 볼 때, 박윤선이 그의 스승들에 대해 “그들의 인격에 대하여 칭찬할 뿐 학적인 질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고 본 서영일의 지적(서영일 2000, 95)은 공정하지 못하다.

학교에서 작은 집 한 칸을 얻어 직접 수리한 후에 가정을 꾸려나갔다(박윤선 1980.4.19.).

다음으로, 승전 시절부터 무보수로 시무했던 「가현교회」를 통해 그의 목양사역은 계속되었다.

주일날은 모란봉 뒤에 있는 가현교회를 시무 하였다. 그때 나는 목사가 아니었으나 심방과 설교에 전력을 다했는데 그때 열심은 나중에 가져 볼 수 없는 것이었다(박윤선 1980.4.19.).

비록 탄탄한 개혁주의 신학 위에서 목회신학을 연구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로 깊이 연구하면서 목회신학의 이론과 실천을 신학교와 목회현장에서 공동으로 체득해 나간 박윤선은 이제 그의 마지막 배움터로 나아가게 된다.<sup>15)</sup>

## 5.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시절

박윤선은 30세 되던 1934년 9월에 유학을 떠나 1936년 5월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했다(正岩記念論叢編纂委 1987, 11). 유학 떠나는 과정 중에서 있었던 다음의 일화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관련 없이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매진하는 박윤선의 일관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오늘날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받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오십 년

---

15) 물론 19년 뒤(1953년 11월), 고려신학교 재직시절에 화란으로 유학을 한 번 더 가게 되지만 한국에 남아있던 그의 아내가 그만 교통사고로 숨을 거두어 그 공부는 5개월도 안되어 별 성과 없이 끝나게 된다.

전 그때는 더욱 어려웠다. … 밤에 서울에 도착하여 걸어가다가 보니 구세군 서대문 영이 눈에 띄었다. … 이 구세군 영에 들어가 철야 기도를 하도록 허락을 얻고 그 밤을 새면서 기도를 드리다가 밝은 아침에 호떡을 하나 사서 요기를 한 후에 미대사관 집무시간에 맞추어 그 곳을 찾아갔다. 그가 대화하는 중 영사가 묻기를, “이 보증인들이 여기 보증한 대로 송금할 것인가?”라는 말에 그는 나dana엘같이 순진한 그 얼굴에 웃음을 띤 자세로 “선생님이 더 잘 아시지요”라고 대답했다. 미리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 시간에 주시는 대로 대답한 것뿐이었다. 이 대답에, 그 말이 잘되어서 인지, 그 솔직함이 귀해서 인지, 만족스럽게 생각해서인지 선뜻 비자 발급을 해 주어서 기쁘게 돌아왔다(正岩記念論叢編纂委 1987, 23~24).

태평양을 건너는 데 17일이 소요된다고 하므로 나는 그 시간을 유익하게 사용하고자 요한계시록을 암송하기로 작정하였다. 매일 같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넓은 바다와 하늘뿐이요, 때로는 풍랑도 심했는데,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암송하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17일 간의 항해는 나에게 있어서 지리한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진리를 섭취하는 단맛 있는 여행으로 바뀌었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에는 18장까지 암송한 것으로 기억된다. 거기서 다시 그레이하운드 버스로 동쪽에 있는 필라델피아까지 한 주간을 달렸는데, 이 때에도 이미 암송한 부분을 계속 외우면서 갔다. 계시록의 나머지 부분(19장-22장)은 학교에 다닐 때 아침마다 외워서 다 마쳤다(박윤선 1997, 71)

그가 입학했을 당시 메이첸(Gresham Machen), 밴틸(C. Van Til), 머레이(John Murray), 알리스(Oswald T. Allis) 등이 교수하고 있었던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박윤선은 비로서 성경의 권위

에 입각한 비판력 있는 개혁주의 성경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었다.

나는 신학자들의 학설에 대한 비판을 이 때부터 제대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성경의 권위로 깨닫게 되었고,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케 되었다. 그리고 이 때에 나는 성경 해석방법도 배우게 되었다(박윤선 1997, 73).

또한 주말이 되면 근처 교회에서 설교도 하면서, “박윤선은 불같다”라는 말도 들었고, 모국에서처럼 항상 뜨겁게 기도하여 옆방에 있던 미국학생이 항상 박윤선의 성경암송 소리와 기도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박윤선 1980.4.26.).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의 공부를 통해 비로소 박윤선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서 세속적인 사상들을 비판하면서 바른 진리를 전하는 말씀의 종으로 서게 되었다. 그러나 이 큰 학문적 진보가 있었던 유학시절동안 박윤선은 참으로 고달프고 외로운 삶을 살았다.

여름방학 동안 3~4개월 가까이 나는 기숙사에 혼자 있으면서 성경 연구에 주력했다. 물론, 나는 가난한 학생으로서 학비 조달 문제도 있었으나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 연구를 보다 중요하게 여겨 홀로 기 여름방학동안 기숙사에 남아 있었다. 그때는 비행기 왕래가 없었기에 고향 가족 소식은 두 달 걸려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멀리 타국에 있는 외로운 나그네로서 고향 생활이 매우 그리웠다. 그래서 종종 기숙사 방과 복도에서 혼자 나와 고향을 지르는 때도 있었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너무도 외로움과 답답함으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박윤선 1980.4.26.).

그 때는 우편물도 선편으로 왕래되었으므로 고향의 가족 소식을



받아 보면 봉투에 찍힌 소인이 약 두 달 전의 날짜였다. 따라서 멀리 타국에 있는 나그네로서 고국이 그리워질 때가 많았다. 너무도 외롭고 답답할 때는 종종 복도로 나가서 크게 소리 쳐 보기도 했고, 자주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곤 하였다(박윤선 1997, 74).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곤란을 겪었던 미국에서의 2년간의 유학생생활<sup>16)</sup>은 그를 더욱더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하는 사람으로 연단되게 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학구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박윤선은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메마른 신학자가 아니라 교인들의 가난과 외로움과 답답함의 절규와 그 눈물을 아는 목회자로 자라갔다. 웨스트민스터에서의 유학생생활은 그 시작부터 줄곧 기도의 눈물과 성경연구의 땀방울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흘러내린 시간이었다. 웨스트민스터 시절의 이러한 말씀 연구와 기도 중심의 생활은 후에 그의 삶과 가르침을 특징짓는 두 주제가 되었다.

힘든 유학생생활을 마지막으로 이제 박윤선은 한국교회를 위해 배우는 입장에서 그 모든 배움의 목적이었던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로 나아가게 된다.

### Ⅲ 목회신학자로서의 사역

---

16) 귀국 후 2년 만에 다시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 건너와 공부한 1년(1938.9-1939.11)을 합치면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의 유학생생활은 모두 3년이다.

## 1. 교회에서의 사역

실로 박윤선은 승실전문학교 때부터 한평생 끊임없이 목회를 하였던 목회자였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의 목회사역은 승전 시절과 평양신학교 시절동안의 바쁜 고학생 생활 속에는 무보수로 최선을 다해 섬겼던 가현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일제시대 말기 만주에서 생활할 때에는 만주 오가황 교회와 배자상 교회에서 사역하였다(正岩記念論叢編纂委. 1987, 11). 이 시기(1940년 3월)는 박윤선이 목사안수를 받음으로써<sup>17)</sup> 그의 본격적인 목회사역이 시작된 때이다. 그는 1940년 4월부터 1941년 3월까지 1년 동안 만주 봉천 오가황 교회에 시무하며 배자상 교회에서도 격주로 설교하였다.

또한 해방 직후 경남 진해에서 열렸던 3개월 동안의 시간동안에도 그 지역의 경화동 교회에서 3개월 이상 시무했다(正岩記念論叢編纂委. 1987, 11).

그리고 고려신학교에서의 사역 후에는 서울 서대문 동산교회를 세우려는 여성도들의 초청으로(최미희 1984, 41), 1961년 2월부터 1964년 4월까지 담임목사로 시무하였다(正岩記念論叢編纂委 1987, 12). 동산교회에 대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1960년 고려신학교 교장직에서 물러나와 부산 금정산에서 기도하던 중 1961년 1월에 서울 동산교회의 담임목사로 부름을 받는다. 동산교회에서의 3년 동안의 목회는 그의 목회사역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일이

---

17) 「敬虔과 學問」에서는 “1940. 3. 만주 한인예수교장로회 신경노회에서 목사장립”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최미희는 “1941년 만주 신경교회당에서 모인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1940년인지 1941년인지는 몰라도, 이 당시에 ‘신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회는 없었다(김요나 1991, 300).

었다. 서대문 구 월남대사관 옆에 있던 장지환장로(당시 집사)의 소유인 건물에서 개척한 이 교회는 새문안교회가 W.C.C.노선에 섬으로 여기에 반대해서 진리노선에 서려고 했던 고응진 장로 가정을 비롯한 쟁쟁한 맴버들이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박윤선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한 것이다. 박윤선목사는 그가 직접 심방을 하는 일은 없었으나 일주일에 세 번의 설교를 사력을 다해 준비하고 외쳤다. 교회의 부흥은 가히 놀라우리만큼 급속도로 성장했다. ... 그는 아이같이 순진한 얼굴로 성도들을 대하면서, 그 진실한 인격 앞에 녹아지도록 만드는 사랑의 목회자였다. 그 후 총신대학원 교수로 부름을 받고 이증직을 못 갖는다는 이유 때문에 동산교회를 사임했다(합신출판부 1995, 383-84).

그 후 총회에서 박윤선을 1965년 3월부터 1967년 2월까지 2년간 부산 총회신학교 교수로 파송하자 그는 그 기간동안 좌천동에 있던 성산교회를 시무하였다(최미희 1984, 42).

또한 총회신학교 사역을 마치고 다시 서울에 올라온 박윤선은 말씀을 외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막을 길이 없어서 1968년 서울 상도동에 한성교회를 개척하고 담임목사로 5년 동안 시무했다.

한편 교회 개척에 뜻이 있는 몇몇 성도들과 함께 68년도 여름에 상도동에서 “한성교회”를 개척하여 수년간 목회하였다. 73년도에 이르러 한성교회에 김진택 목사를 추천하고, 나는 매월 첫 주일 낮 설교를 하는 것으로 협력하였다(박윤선 1997, 145).

그러나 한평생 계속되었던 박윤선의 목회사역은 이 한성교회를 끝으로 더 이상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졌다. 많고 과중한 그의 사역들로 인해 그의 건강을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

70년도에는 내가 좀 무리하게 과로한 일이 있었다. 서대문 동산

교회의 김성환 목사가 안식년을 맞아 도미 유학하게 됨에 따라 그 교회에서 나에게 1년 동안 주일 설교를 요청하였다. 동산교회의 일이라면 나로서는 기꺼이 협력할 마음이 있었으므로 그 청원을 수락하였다. 그리고 주일마다 상도동과 서대문을 왕래하면서 두 교회 설교를 담당하였다. 71년도에 들어서서 나는 위경련 발작으로 인하여 여러 번 고통 하였고, 고려병원에서 종합 진찰을 받은 결과 담석이 확인되었다. 의사의 권면은 앞으로 강의, 설교, 저술 중 한 가지만 선택하고 절대 안정하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세 가지 중 주석 저술에만 주력하기로 결심하고, 우선 조용히 요양할 목적으로 일단 미국으로 갔다(박윤선 1997, 145-46).

그런데 교회 설교자로서의 박윤선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윤선은 1977년 6월부터 11월까지 일시 귀국하여 자신이 정년퇴임한 총신에서 잠시 강사로 봉사할 때에도 서울 성도교회에서 설교목사로서 말씀을 전했다. 또한 노구의 몸으로 합동신학교에서 사역할 때에도 매일 있었던 경건회 때에 다른 교수들의 네 배 이상 설교를 자주 하였을 뿐 아니라(합신출판부 1995, 88), 팔순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장안교회를 본 교회로 섬기면서 성도들과 교역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를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최미희 1984, 52).

이처럼 한 평생 목회를 계속하며 철저히 교회를 섬기는 목회신학자로서 살아갔던 박윤선은 그 자신이 그렇게 살았듯이 경건과 학문과 인격이 통합된 신학교육으로 자신의 제자들을 균형 잡힌 목회자로 양성하길 힘썼다. 이 사역은 신학교에서 이루어졌다.

## 2. 신학교에서의 사역

1936년 웨스트민스터에서 돌아온 박윤선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교회의 신학을 위해 헌신하게 되었다. 그의 나이 32세 된 때였다. 그의 첫 번째 사역은 평양신학교의 헬라이어 강사와 평양의 유일한 여자신학교였던 고등성경학교의 시간강사 직이었다(박윤선 1980.5.3.). 이 시절 삼십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젊은 박윤선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일화가 당시 평양 고등성경학교의 학생이었던 박윤삼 목사에 의해 소개되었다.

평양 고등성경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던 어느 날 한 짓곳은 학생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를 결국 하나님은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였다. 그 학생의 질문을 듣자마자 正岩이 옆에 있던 의자를 높이 쳐들었다 바닥에 던지면서 한 말은 “잔말 말고 믿으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의자는 산산 조각이 나고 말았다(기독교 학술원 1993, 16).

의자를 바닥에 내리칠 정도로 긴장감이 고조된 그 구체적인 정황이 자세히 소개되지 않았기에 짐짓 젊은 날의 박윤선을 혈기만 왕성한 모습으로 오해할 소지는 있겠지만 비록 그 거친 반응을 통해서나마 이 당시의 박윤선의 사역이 얼마나 성경의 진리에 대한 철저한 확신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는 충분히 엿볼 수 있을 것이다.<sup>18)</sup>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평양신학교는 신사참배 반대로 인해 문을 닫게 되었고, 박윤선은 신사참배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2차 웨스트민스터 유학(1938.9-1939.11)을 위해 미국으로

---

18) 진리문제로 인해 ‘거룩한 분노’를 발하는 경우가 이 외에도 더 있었을 것이다. 그 중 하나가 박윤선이 주먹으로 강대상을 내리쳐 강대상이 부서진 일인데, 그것은 한경직 목사가 메이첸을 분리주의자라고 비난했기 때문이었다(서영일 2000, 149).

건너갔고 유학을 마친 뒤에는 일본을 거쳐 만주로 건너갔다.

만주에서 박윤선은 봉천신학원이 설립된 1941년 4월부터 1943년 7월까지 그 학교의 교수로 섬겼다(박윤선 1997, 88). 이 학교는 5개 교과(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동아기독교, 조선기독교)가 연합하여 만든 초교과 신학교였는데(김요나 1991, 301), 이 곳에서 그는 신약학과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쳤다(박윤선 1997, 89). 그러나 이곳에서의 사역 역시 초기 평양에서의 사역에서처럼 교수로서의 박윤선의 두드러진 모습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어느새 신사참배에 대한 일본의 강요는 만주에까지 뻗쳐 봉천신학교 학생들과 교수들까지 신사참배에 동참하자 그는 결국 2년 3개월 동안 섬겼던 그 학교 교수직을 신사참배를 하면서까지 더 이상 수행할 수는 없어 사임하고 만다.

이 시대에 본국 교계는 신사참배 문제에 휘말려 심히 어지러운 국면에 놓여 있었고, 좀 새롭게 나아가려던 만주 교계에까지 그 신사참배의 바람이 불어와서 점점 어지러워졌다. 그러므로 나는 신사참배 문제와 타협하고 나아가는 교계에서 탈출하려고 기회를 찾으며, 조용한 곳에서 성경 주석 저술에만 전념하기로 작정하였다(나도 신사참배를 한 번 했으므로 회개하는 심령으로)(박윤선 1997, 89).

본래 박형룡 박사와 박윤선 목사를 교수로 초빙하였을 때 두 교수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국이 점점 험악해짐에 따라 두 교수의 처세는 매우 어렵기만 하였다. ... 이와같은 어수선하고 아이러니칼한 분위기 속에서 박형룡, 박윤선 두 교수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다. 그래서 正岩은 신경쇠약과 불면증에 걸려 고생하게 되었다(기독교 학술원 1993, 19-20).

평양신학교와 봉천신학교에서 특별히 두드러진 사역을 하지 못했던 박윤선은 부산 고려신학교를 시작으로 그 본격적인 교수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고려신학교의 설립 목적이, 과거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한국 교회의 과오를 회개하고 교계 정화를 이루기 위함이었으므로 신학교는 “성경 중심, 진실 위주,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자”고 하는 주장으로 힘차게 나가고 있었다(박윤선 1997, 98).

한국교회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개교한 고려신학교에 대해 박윤선은 이 학교를 한상동과 주남선 목사가 세웠고 자신은 별로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박윤선 1980.5.3.), 한상동을 비롯한 몇몇 강사들을 제외하면 박윤선 외에 단 한명의 교수도 없었다는 점에서<sup>19)</sup> 고려신학교가 거의 박윤선의 신학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박윤선의 신학 교수는 아침 9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5시가 되기까지 쉴 틈이 없었지만, 그는 고려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즐거웠고, 그것을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하여 매시간 열정을 다 쏟았기 때문에 매번 ‘종’ 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강의할 때가 많았다(최미희 1984, 36). 고려신학교에서의 박윤선의 사역은 단순히 전문적으로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사역을 넘어서서 고신의 학생들과 전 고신교단의 영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매우 특별한 목회사역이었다.<sup>20)</sup>

19) 이 당시 박윤선은 주경신학은 물론, 조직신학과 성경신학 그리고 성경 원어까지 가르쳤고, 한상동은 목회학을 한명동, 이상근, 박손혁은 강사로 협력했다(박윤선 1997, 97).

20) 고신 교단 전체에 미쳤던 박윤선의 목회적 영향력은 그가 으레 주장사로 섬겼던 전국학생신앙운동(S.F.C)의 심령부흥회를 비롯한(기독교 학

박윤선의 두 번째 본격적인 신학교에서의 목회사역은 총신에서 펼쳐진다.<sup>21)</sup> 그는 1963년 3월부터 총신에서 교수사역을 시작하여 1974년 11월에 70세로 정년퇴임 할 때까지 총회신학교의 교수로 섬겼다(正岩記念論叢編纂委 1987, 12). 총회신학교와 총신대학에서의 사역에 대한 그의 회고는 다음과 같다.

1963년부터 장로교 합동측 총회신학교에서 교수하는 중 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생각한다. 총회신학교에서 11년 동안 교수하다가 70세를 일기로 은퇴하게 되었다. ... 나의 신학 교수에 있어서 언제나 불타는 가슴으로 학생들에게 주고자 한 것은 칼빈주의 신학이었다. 칼빈주의 신학이야말로 성경을 그대로 전하는 말씀의 신학이기 때문이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은혜로 성경말씀의 단맛을 경험했으니 후배들에게 내가 깨달은 성경을 전수하는데 있어서 최대한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늘 많은 시간 동안 가르치고 싶었고 또 가르칠 때마다 최대한으로 정력을 기울였다. 그뿐 아니라 나는 신학을 가르치는 동안에 부족하면서도 학생들에게 강조한 것은 진실한 신앙생활과 기도 생활이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칼빈주의 신학을 터득하기 전에는 졸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였다(박윤선 1980.5.17.).

---

술원 1993, 24) 교단이나 개교회적인 집회를 통해서와 그의 왕성한 문서사역의 장이었던 「과수군」을 통해서 전달되었다.

21) 엄격히 따지자면 두 번째 신학교사역은 「개혁신학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박윤선이 고려신학교에서 나온 후 총신에 오기 전 그가 동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을 때 내수동교회 내에 「칼빈성경연구원」을 개설하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연구원이 동산교회로 옮겨지면서 개혁신학교로 명명되어 운영되었다. 교수로는 박윤선과 함께 김홍전 박사, 간하배 선교사, 신내리 선교사가 맡고 있었고, 강사로는 김진홍 목사를 비롯한 여러 목회자들이 활동했는데, 이 학교는 1964년 그가 총신의 교수로 부임하자 자연히 소멸되었다(합신출판부 1995, 402-403).



67년 3월에 다시 상경하여 사당동 총회신학교 교수를 계속하였다. 담당했던 과정들을 분류해 보면, 1학년은 성경해석학, 신약석의(요한복음), 2학년은 신약석의(공관복음·로마서·바울서신), 복음사, 사도사, 3학년은 신약석의(목회서신, 요한계시록의 교회론 및 말세론), 신약신학, 사도사였다. 특별히 동양철학 비판과 신약개요를 대학부 4학년 학생들에게 몇 년 동안 가르쳤다(박윤선 1997, 145).

고려신학교에서도 그랬듯이 박윤선의 신학교육은 단순히 학적인 교수에 그치지 않는다. “불타는 가슴으로” 칼빈주의 신학을 가르치되 그 신학은 항상 먼저 그 “단맛을 경험”한 체험적인 가르침이었고 그 신학은 “진실한 신앙생활과 기도 생활”과 병행되는 전 인격적인 학문이었다. 박윤선은 한 명의 교사로서 지식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목자로서 학생들의 전 삶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고자 노력했다.

목회신학자로서의 박윤선의 마지막 사역은 합동신학교에서 이루어진다. 그는 합동신학교가 남서울교회에 있을 당시인 1980년 11월부터 1985년 4월까지 교장으로 섬겼고, 동년 4월 20일에 현재의 수원에 있는 교사를 완공하여 준공예배를 드린 후부터 소천할 때까지는 명예 교장으로 있었다(正岩記念論叢編纂委 1987, 12). 이 마지막 일터에서 그의 사역에 대한 신복윤의 회고는 다음과 같다.

1980년 11월 18일 그는 합동신학원 초대 원장이 되었다. 당시 76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새사명을 주신 것이다. … 칼빈주의 근본원리인 하나님의 주권사상이 그의 전체 생활 밑바닥에 깊이 깔려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의 신앙의 참모습을 우리 교수들과 학생들은 가까이서 항상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기도를 강조하면서 기도하다가 죽었

다는 말을 들어보라고 하였다. 학문에도 역점을 두고, 공부 안하면 거짓말밖에 할 수 없으니 공부하다가 죽었다는 말도 들어보라고 강조하였다. 경건생활과 생활의 순결을 말끝마다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의 우상은 아니었으나 우상처럼 우리 모두의 존경을 받으며 원장직과 교수직을 수행해 나오다가, 1985년부터 4월 명예원장이 되어 소천하기 며칠 전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주님 곁으로 갔다(합신출판부 1995, 83-84).

고신과 총신에서 그러했듯이, 합동신학교에서의 박윤선의 사역 역시 신학공부 뿐 아니라 진실한 인격과 경건한 기도생활을 함께 가르친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이었다.

## IV 목회신학자로서의 박윤선의 진가

지금까지 우리는 목회신학자로서의 박윤선의 예비적인 성장기와 교회와 신학교에서의 그의 사역을 개관해 보았다. 그렇다면 목회신학자로서의 그의 성장과 사역을 통해 드러난 박윤선의 목회신학의 진수들은 무엇인가?

### 1. 진리의 종

진리의 종으로서의 박윤선의 목회신학자적 면모는 성경무오의 파수군, 성경주석가, 설교자로서 표현되었다.

첫째로, 박윤선은 한평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스

스로 믿었고 그 믿음을 타인에게 증거했다.

1. 나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믿음: 나는 평생 성경을 해석해 보는 중 어떤 난해 문구나 난해 본문을 대할 때에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 ... 2. 나는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계시)이라고 믿음: ... 3. 나는 성경의 유기적 통일을 믿음: 성경은 단편문서들의 문집이 아니고 유기적 통일을 지닌 말씀이다. ... 4. 나는 성경 무오의 진리를 믿음: 나는 한 평생 성경을 해석하는 중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비판한다. ... 5. 나는 성경 말씀은 살아 있는 말씀이라고 믿음: 성경 말씀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다(박윤선 1986.5, 4-5).

이러한 성경에 대한 신앙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박윤선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 무오한 권위를 역설한 사람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한국교회에 확립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권성수는 이와 같은 박윤선의 성경관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박윤선 박사의 성경관은 성경의 절대권위를 확립한 성경관이다. 성경을 해석하는 기초작업으로서 성경의 절대권위를 확립하는 것은 가히 사활적 중요성을 지닌다고 본다. 박 박사는 성경의 절대권위를 성경 자체 내에서 찾아 성경의 영감성과 무오성으로 요약하여 제시했다. 완전 영감을 축자 영감과 직결시켜, 성경은 전체적으로와 축자적으로 무오함을 강조했다. 이것은 초기 한국교회를 성경의 절대권위 위에 든든하게 세우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 박사는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권위서라는 확신에서 성경 66권을 주석하였으므로 한국교회를 성경의 절대권위의 반석 위에 세우

는 데 크게 공헌한 것이다(권성수 1991, 193).

남서울은혜교회의 홍정길 역시 박윤선의 이러한 성경관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은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 중 한사람이다.

평생 학생 단체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서원 했던 필자는 … 우여곡절 끝에 입학한 곳이 사당동 총회신학교였다. … 그러다가 박윤선 목사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 이제껏 들은 판에 박힌 지식 전달이 아니라 힘으로 역사 하는 강의였다. ‘말씀이 감동으로만 전달되는 줄 알았는데 힘으로 전해지다니…’ 내심 놀라면서 그 시간을 기대하기 시작했다. … 그 어른이 무엇보다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지닌 것은 성경무오설이었다. 말씀의 권위, 오직 그 앞에서 복종하는 삶을 그의 생애를 통해 입증하시었다. … 그 후 여러 학자를 보았지만 그 분만큼 성경무오설을 자기 생명처럼 주장하시는 분은 뵈지 못했다(합신출판부 1995, 121-23).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고 성경 말씀의 권위를 진정 존중하는 목회자들 가운데는 박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손봉호의 평가(합신출판부 1995, 119)는 정당하다. 선교초기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한국교회의 믿음은 “성경은 나의 권위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지휘관이요, 나에게 생명과 같은 책이다.”라고 고백했던(합신출판부 1995, 257) 박윤선에 의해 비로소 능력 있게 전파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무오를 주장했던 박윤선의 성경관은 “게시의존사색”이라는 신학태도로 연결되었다.

선생에게서 배운 수많은 제자(弟子)들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남은

것은 아마 그 “계시의존사색”이란 짙막한 문구일 것이다. 부산 광복동 빌딩 안의 어느 조그마한 다다미방 위에 앉으셔서 마주 앉은 신입생들에게 변증학을 가르치셨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교(異敎)에 관한 언급을 하실 때는 그 얼굴모습이 일그러지시고, 성경말씀에 관한 내용이 나올 때는 어디서인지 힘이 솟아나 안색이 밝아진다. 인간의 사상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기독교 학술원 1993, 31).

신학자에게는 ‘내가 말한다’는 위치가 전혀 부여되어 있지 않다. 그는 다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어야 할 처지에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계시 의존사색(啓示 依存思索)만이 그의 지켜나갈 궤도이다(박윤선 1983[2], 5).

둘째로,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했고 그 권위 아래서 “계시의존사색”의 방법으로 신학 했던 박윤선은, 그러한 성경관과 신학태도 위에서 그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주석하였다.

신구약성경 주석 총 20권을 완성함에 따라 79년 10월 9일에 주석 완간 감사예배를 총신대학 강당에서 드리게 되었다. ... 주석 사업의 동기는 자신이 먼저 성경을 깊이 알고 남들에게도 올바르게 전하려는 데서 시작했다. ... 나는 성경을 주석 할 마음으로 늘 뜨겁게 되어 있다. 이런 소원이 있었기에 신구약 66권을 모두 주석할 수 있었다. 나에게 성경 주석사업보다 기쁜 일은 없었다(박윤선, 1980.5.24.).

“자신이 먼저 성경을 깊이 알고 남들에게도 올바르게 전하려는” 소박한 목적으로 시작한 박윤선의 성경 주석은 서론에서도 지적했

듯이 말씀의 기근이 심각하던 한국교회의 목회 현장을 돕는 것으로 열매 맺게 되었다. 1984년 극동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주석을 쓰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신앙적, 학문적, 육체적 자세가 무엇인지를 소개했다.

1) 기도하는 마음 자세와 실제 기도 생활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의 절대적 권위를 믿고, 기도하므로 성령의 조망을 얻어야 한다. 2)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 하는 것이요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인 것이다. 3) 참고 도서를 많이 읽을 것: 나의 해석과 나의 생각만 위주로 하여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를 면하기 어렵고, 진리가 밝혀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4) 참고 기다리는 인내이다: 성경에는 난해 절이 많이 있다. 이것을 억지로 풀려 하면 멸망에 깊이 빠지게 된다(벧후 3:16).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묵상으로 인내함이 옳은 것이다. 5) 건강생활: 아무리 훌륭한 환경과 조건이 이루어져도, 건강이 없게 되면, 꾸준한 노력을 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최미희 1984, 48).

성경의 권위에 대한 경외심과 육체적인 건강을 바탕으로 기도의 영성, 인내의 성품, 참고 도서를 통한 학문성을 겸비하여 쓰여진 성경 66권 주석은 이렇게 하여 완성되었다. 비록 그의 주석이 오늘날의 동시대적인 학문적 요구에 못 미치는 점이 많다 할지라도 박윤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려워하며 경건의 능력을 갖춘 거룩한 성경주석가를 찾기 어려운 만큼 그의 성경주석은 현대교회에서도 계속 독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무오한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연구하기를 힘썼던 박윤선은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 총신대 특별집회에서 학생들에게 외친 설교에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믿음과 강단사역의 관련성과 그 목표가 잘 드러난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성경의 권위를 보여주고 이 성경의 내용을 알게 하고 성경이 말하도록 하는 강단들이 되도록 이바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자기를 숨겨야 합니다. 자기가 나타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교훈하여 말씀이 역사하도록 할 때만이 하나님의 참된 운동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많은 신자들이 개조되며 많은 사람들이 완성되어가는 열매를 거두는 줄 압니다(박윤선 1977.9.14).

말씀의 권위에 대한 확신과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회개와 성화로 이끌고자 사모했기에 박윤선은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병상에 누워 가족들에게 “모든 친구들이 다 갔으니 나도 가야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설교를 못하는 것이다”라고 아쉬워했다(합신출판부 1995, 87). 박윤선이 입술로 직접 선포한 설교는 셀 수도 없거니와 그의 주석과 설교집에 기록된 주석만도 1,500편이 넘으며 육성이 녹음된 설교도 매우 많다(합신출판부 1995, 398). 박윤선의 설교준비는 “연구에 의한 준비”와 “기도의 준비”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본문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요소들을 찾”아서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고 “그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여 현실적 의의를 찾”는 것이고, 후자는 “설교를 지적(知的)으로 준비하고 그것을 기도로 불붙이는 일”로써, 이 기도에 대해 그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때로는 나의 심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 자신의 제물이 될 정도로

심각해지기도”한다고 고백한다(박윤선 1986.5, 6). 그의 두 단계의 설교준비 중 후자에 관련된 그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과연 박윤선 목사의 설교는 진리를 깨닫되 가슴으로 뜨겁게 해서 전력을 다해서 선포하는 설교였다. … 그가 설교를 준비할 때 온 식구들은 그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가 진리의 영감이 용솨음칠 때까지 기다린다. 때로는 아침 아홉시, 때로는 열시까지 진리의 깨달음이 와서 환희와 기쁨이 터질 때 비로소 아침상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다(합신출판부 1995, 388).

성경연구를 다 마친 후 그것을 설교하기 위해 연구한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증거할 메시지가 용솨음칠 때까지 식사까지 미를 정도로 말씀증거를 위해 매진했던 박윤선의 설교의 특징을 신복윤은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 그의 설교는 한결같은 데가 있다. 웅변은 아니나 힘이 있었고, 수식은 없으나 감동을 주었고, 죄와 현실의 교회의 비리에 대한 선지자적 경고와 책망이 있으나 그것을 아무 거부감 없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설교였다. 그는 설교에서 자신이나 자기 가정에 대하여 말하는 일이 없었고, 흔히 목회자들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강단에서 화풀이하는 식으로 분풀이하는 것을 금하였다. 그의 설교는 흡수력이 강했다. 표현력이 부족한 것 같으면서도 깊이가 있고 조직이 있어 사람들의 가슴을 뚫고 들어간다. 가슴과 가슴이 마주 치고 몸과 몸이 하나가 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흡수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명상하며 새기고 그리고 풀이해 주니 회중들이 그의 설교의 말씀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다(합신출판부 1995, 88).



한평생 진리의 종으로 살며 그 진리를 증거하기에 힘썼던 박윤선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3개월 전(1988년 3월)에 한국 찬송가공회의 청탁으로 작사한 찬송 가사가 있었다. 영음사나 박윤선의 홈페이지에서 작곡된 찬송가로 들을 수 있고 가사도 인쇄할 수 있는 이 찬송은 세 절로 되어 있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이다. 그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르기를 원했을 이 찬송 가사를 통해 생의 마지막까지 박윤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기도의 제목들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찬송가의 1절은 다음과 같다(박윤선 1988.).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여  
 나의 속에 사욕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위해

마지막 한 호흡까지 진리로 거룩하게 된 진리의 종으로 진리의 주님 위해 쓰임 받는 것이 그의 일평생 소원이었다.

## 2.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래서 한 평생 그 진리를 연구하고 순종하며 증거하는데 일생을 바친 박윤선에게는 그로 인한 희생의 눈물과 기도 역시 한 평생 동반되었다. “성경 연구는 절대로 필요하지만 기도 없이는 완전하지 못하다(박윤선 1987.5, 9).” 진리의 종은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기도는 그의 생활이었고 호흡이었으며 “신자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적합한 장소를 찾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박윤선 1987.5, 9) 심지어 이사를 할 때도 기도생활에 주는 기여도로 자신의 주택을 구했다.

나는 산과 들을 좋아한다. 그 이유는, 그 곳에서 기도하려는 의욕 때문이다. 산을 보든지 들을 보든지 나의 마음에는 ‘저기에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욕이 일어난다. 나는 주택을 구할 때에도 산 가까이 위치한 집을 원한다. 그것은 내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기 위함이다(박윤선 1997, 167).

이러한 기도의 삶이 고신에서도 총신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고신에서의 교수 시절 때의 박윤선의 모습에 대한 이근삼의 회고와 총신 시절 때의 김명혁의 회고는 다음과 같다.

선생님은 언제나 기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연구실에서 말씀 연구와 강의 준비 중에 말씀 앞에 목 놓아 큰 소리로 기도하시던 그 소리를 기억합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흘러나오던 기도 소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깊은 밤중에도 거실에서 흘러나오던 기도 소리를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합신출판부 1995, 116).

박 목사님은 기도를 생활화하신 분이였다. 기도를 쉽게 하신 분이 아니라 수고스럽게 하신 분이였다. 총신에 계실 때, 매일 새벽 택시를 타고 총신에 오셔서 뒷산에 올라가 2-3시간씩 기도하시는 모습을 한 6개월 동안 옆에서 목격한 일이 있다. ... 박 목사님은 어디에 가실 때나 또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에도 간간이 “주여! 주여!”라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곤 했다. 이 음성엔 마치 영혼의 호흡 소리와 같이 들렸다. 나는 마지막 1주일간 병상에 계신 박 목사님을 매일 뵙곤 했는데 그때야말로 기도로 일관한 기간이었다. 바로 그때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죽고 싶다고 고백하시기도 했다. 그는 결국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

고 부르짖으며 주님 품에 안기셨다. 박 목사님은 기도를 생활로 가르쳐 주신 분이였다(합신출판부 1995, 95).

이처럼 한평생 기도로 살았던 기도의 사람 박윤선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출발했다.

첫째로, 박윤선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오지 못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수단이요 성화의 방편이었다. 그의 고백을 들었던 주위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박윤선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대해 순교자 주기철과 같은 자세로 대항하지 못한 것을 일평생 회개하면서 살았다고 한다.

특히 1946년부터 1950년까지 약 4년간 正岩이 고려신학교에서 강의하던 때는 자신의 신앙고백 시간이요, 회개의 시간이었다. 일제 말기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못했던 것을 통회하면서 눈물로 강의하였다(기독교 학술원 1993, 23-24).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 생사를 오가면서 박윤선은 가족들에게 두 가지의 죄를 고백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를 때에 이것을 자랑스러워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일본의 점령기에 미국에 가서 유학한 것이 박해를 피해 도망간 것”이라는 고백이었다(서영일 2000, 387).

또한, 힘쓰고 애쓰는 기도에 관한 그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처럼 박윤선은 주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도록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쳐 복종시키는 성화의 삶을 위해 기도했다.

특별히 신자들은 기도를 고생하면서 해야 된다. 그 이유는, 기도는 진실해야 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힘쓰며 애쓰지 않으면 그 마음

에 불성실과 태만이 지배하고 또 망령되어진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쳐 복종시켜야 된다(박윤선 1987.5, 22).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용서의 세계에서 산다는 것이다(박윤선 1987.5, 16).”라고 말했던 박윤선에게 기도는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서의 방법이었다. 박윤선은 그가 혼신을 다하여 섬겼던 고려신학교에서 계속 사역하지 못했다. 서영일은 박윤선이 고려과와 결별하게 된 것을 예배당 소송 사건으로 인한 “고려과 정신의 퇴조”, “네델란드 교회에서 학교에 보내준 보조금을 돌려싸고 고려과 안에서 불법적인 일이 일어난 것”과 같은 고려과의 도덕적 타락뿐 아니라, 한 때 예배당 소송 문제로 그와 대립했었던 송상석 목사가 “박윤선 목사를 (고려신학교에서) 제거해야겠다고 결심”하였고 한 때 박윤선의 둘도 없는 동역자였던 “한상동 목사가 박윤선을 질시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밝히면서, “박윤선이 떠난 것이 고려과 내에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확신에 찬 결론을 내리고 있다(서영일 2000, 276-281). 결국 “박윤선은 상처받은 마음으로 고려과를 떠났다(서영일 2000, 282).”

탐욕스런 교회 정치 지도자들에 의한 박윤선의 시련은 총신에서도 반복되었다. 홍치모는 “正岩과 같은 신학자를 모시기에는 한국 교회와 신학교는 너무 혼탁하고 세속적이고 정치적이다. 그가 제일 싫어했던 것 중의 하나는 교권주의였다”라고 말하며 박윤선이 총신을 떠난 배경을 설명한다(기독교 학술원 1993, 26). 고신에 송상석과 한상동이 있었다면, 해방 후 최대의 혼란에 빠져 있었던 1979년 말 총신에는 이영수가 있었다.

이 모든 타락의 중심에 학교 이사 중 한 사람인 이영수 목사가

있었다. 그의 독재적이며 독단적인 학교 운영 때문에 학교가 순수성과 독립성을 잃어버렸다. 지방주의 정서를 이용하고 조종하여 음모와 모략에 의하여 교권을 장악한 그는 그의 하수인들을 교회의 요직에 앉혔다. 그가 심어놓은 사람들과 총회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그는 학교를 자신의 전유물처럼 움직였다. ... 박윤선이 ... 학장이 되어 처음으로 한 일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이다. ... 그러나 학교의 행정 직원들은 이영수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들이었고 ... 이들은 박윤선에게 협조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도전하는가 하면 그의 말을 무시하였다. ... 모든 문제의 핵심을 간파한 박윤선은 여러 번 이영수를 만나 “한국교회 전체를 위하여” 교회 정치로부터 물러날 것을 부탁하였다. ... 이영수는 이 권고를 교회 전체의 의견이 아닌 박윤선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따를 수 없다고 하였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오는 총회에서 혼날 줄 알라”고 위협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박윤선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 ... 얼마 후 박윤선은 총학장 서리직에서 물러났다(서영일 2000, 308-313).

고신에서도 총신에서도 부패한 교권주의자들에 의해 미움과 모함을 당했던 박윤선은 일절 그들에 대해 인간적인 감정으로 비난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다. “용서의 세계”에 살았던 참 신자였던 박윤선이 한평생 지켰던 그의 좌우명은 “임석(臨席)하지 않은 사람의 말을 하지 말라”였다(영음사 1999, 9). 그래서 총신대와 합동신학교에서 오랫동안 함께 교수활동을 했던 신복윤은 “한번도 그가 남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합신출판부 1995, 82). 평생 지우기 힘든 상처들을 많이 받았을 그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대해 일절 사적인 불평이나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오히려 그는 과거에 자신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던 인물들이 운영하고 있던 고신에 사재 천만 원을 장학금으

로 지급하기까지 했으니(오병세 1988.8, 44) 그의 입술에만 불평이나 비난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의 마음에도 미움을 품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의 원수는 나 자신과 마귀 밖에 없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나를 쳐 복종시키라’ 하였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였다. 나 개인에게 좋지 않게 대한 사람을 원수로 알면 안 된다(박윤선 1970, 106).”라고 말했던 그에게 인간 원수는 없었다. 최악 된 인간들이 아니라 오직 자신과 마귀만 원수로 알게 되기까지 용서의 주님 앞에서 그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곡과 함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겠는가! 그가 작사한 찬송가의 2절 가사는 이와 같이 한평생 그 부족한 형제들을 용서하며 오직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기만을 위해 기도했던 박윤선의 자화상을 잘 보여준다(박윤선 1988.).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위해

셋째로, 박윤선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구기도였다. 그가 “주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이며, 이는 사람을 위함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바르게 가르쳤다(기독교 학술원 1993, 156).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기도를 다 이루어주시지 않는다. 그는 참된 기도만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박윤선 1987.5, 6), 박윤선의 기도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편만한 기도처럼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다.

우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병자의 고통이 계속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병을 고쳐주시고 고통을 멈추는 것이면 낮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기 즐거워하신다. 그래서 조용, 조용히 기도해도 병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합신출판부 1995, 259-261).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박윤선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신앙의 주제 중 하나였다. 그의 작사 찬송가 3절은 다음과 같다(박윤선 1988.).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  
응답받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위해

넷째로, 박윤선에게 기도는 목회자의 능력의 근원이었다. 먼저 박윤선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 능력이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 편의 기도가 있는 곳에 성취된다. … 우리의 모든 실패는 기도 부족의 결과이다(박윤선 1970, 18).” 다음으로, 박윤선에게 기도는 목회자로서 건강한 영성을 소유하는 능력이었다. 장로회신학대의 오성춘은 다음과 같이 박윤선의 영성을 평가한다.

… 기독교 교역과 영성과의 관계의 맥락에서 볼 때에 박윤선 교수의 공헌은 지대하다고 할 것이다. 방대한 그의 성경주석들과 논문들은 교역자들을 하나님 중심에 서도록 끊임없이 권고하고 있다. 그는 성경의 가르침을 중시하고 교역자의 삶의 원천을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뜻에 맞추도록 하는 목적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는 기도를 논의하면서도 철학화한 기도나

관념화한 이론을 경계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 그와 깊은 사귄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경건과 영적인 능력을 힘입은 자만이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다고 박윤선 교수는 주장하고 있다(기독교 학술원 1993, 154).

박윤선은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목회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목사는 음성으로써 외식의 죄를 범하기 쉽다. 특히 대중 앞에서 기도할 때에 아첨하는 말로 기도하기 쉽다. 그러므로 목사는 남들이 듣지 않는 데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며,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상대가 보이지 않는 데서 말할 줄 알아야 보이지 않는 영혼을 구원한다. 영혼은 하나님께서만 취급하신다. 설교도 무생물 상대로 할만한 뜨거움과 확신이 있어야 됴과 같이(사 1:2), 기도도 뜨거움과 확신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박윤선 1987.5, 6).

마지막으로, 박윤선에게 기도는 참다운 개혁주의 신학의 시금석이었다. 기도의 사람 박윤선에게 기도 열기 없는 차가운 개혁주의 신학은 난센스였다. 고려신학교에서 활발히 사역하던 1953년 10월에 떠났던 화란의 개혁교회에서 그는 이러한 유감스런 개혁신학을 경험했고 그러한 개혁주의는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신학과는 다른 것이었다.

나는 개혁주의 아성이었던 화란의 자유대학(Vrije Universiteit)에 1년간 신약학 연구를 하기 위하여 그곳엘 갔었다. 나는 가난한 학자로서 그곳에서 최저의 비용으로 하숙하면서 자유대학에서 신학자들의 강의를 들었다. ... 한 가지 괴로웠던 것은 개혁주의 신학에



선전이 되는 그 나라 교회들이 기도를 등한히 하는 사실이었다. 나는 벌써 거기서 개혁주의 신앙이 올바르게 파수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진리파수는 간절한 기도생활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화란교계의 움직임이 이렇게 건조함을 보고 나는 귀국할 마음도 없지 아니하였으나, 나는 그대로 연구를 계속하기로 작정하였다(최미희 1984, 38).

오늘날 개혁주의 진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경건과 사랑이 부족하다. 그들의 기도하는 생활은 너무 약하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혁신학’하지만 원래 개혁 신학자들이 가졌던 영열은 없다. 루터 선생의 뜨거운 기도가 오늘날 저들에게 없다. 칼빈주의자 낙스도 기도의 인물이었고, 칼빈주의 전도자 스펀전도 기도의 사람이었다. 영력과 경건이 부족한 대로 그냥 신학적 이론만 위주하다간 별수 없이 성경무오설을 그냥 그대로 믿지 못하는 데로 떨어지기 쉽다. 그 이유는 성경무오의 내막을 학리적으로만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합신출판부 1995, 309).

박윤선에게 있어서 개혁주의 신학의 “진리파수는 간절한 기도생활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었기에 기도를 등한히 하는 개혁신학은 위험한 것이었다. 기도 없는 개혁신학은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결국 교회에 해를 끼칠 뿐이다. 그래서 그는 후에 화란으로 유학을 간 한 후배에게 다음과 같은 강한 권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무엇보다도 기도에 시간을 많이 쓰십시오. 학문만 위주하고 기도하지 않는 신학자들은 자유주의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그런 자들은 교회에 해를 끼칩니다(정성구 1991, 63)

화란 유학 직후에 고려신학교 학생들에게 기도를 뜨겁게 하지 않는 외국의 신학교들에서 신학을 공부할 바에는 차라리 기도가 있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 것도 기도 없는 개혁신학이 그에게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에 유학을 가려하는 이가 ‘어느 학교로 갈까?’하는 물음에 대하여 나는 ‘미국으로 가려면 웨스트민스터 신학이나 칼빈 신학교로 가시오. 그러나 기도 많이 하는 신학을 하려면 한국에서 하시오.’라고 대답한다. 한국 교회에 좋은 점은 기도하는 교회인 까닭이다(박윤선 1954.6, 43).

박윤선이 진리의 종이었기에 그는 그 진리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반응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말씀과 기도는 그의 신학과 인격에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뿌리박혀 한 평생 그를 뜨거운 개혁주의 신학자로 살아가게 하였다. 또한 진리연구와 기도훈련에 대한 이러한 인격화된 통전적인 시각으로 인해 그에게 기도 없는 신학은 결국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유주의 신학의 출발점으로 보였다.<sup>22)</sup> 마지막으로 박형용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박윤선의 기도에 관한 몇몇 잠언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기도할 때는 시간을 바치고 기도해야 한다. 시간을 바치지 않는 것은 속히 하고 가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이라도 바쳐놓고 기도에 임해야 한다. ...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음성이 귀하다.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는 풀리지 않고 논리가 서지 않는

---

22) 기도가 절대자의 인격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기도 없이 감히 하나님을 연구하고자 하는 신학 태도는 결국 인간의 인식론적 한계를 방자하게 과신하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 … 사람이 입을 열지 아니하면 마음 문도 닫혀진다. …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깨달을 수 있다. 마치 눈을 감고 있는데 얼음 덩어리를 손에 가져다 대었을 때 그 찬 기운이 몸 안에서 오는지, 몸 밖에서 오는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깨달을 수 있다. 기도를 힘써하고 간절히 할 때 이런 체험을 하게 된다(합신출판부 1995, 259-261).

### 3. 진실된 인격자

한평생 진리의 종이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박윤선의 인격이 그 진리와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으로 거룩해질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래서 그의 삶과 가르침에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인격적인 탁월함이 있었다. 그는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 쳤던 참 신자였다. 한 평생 박윤선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방지일은 박윤선을 예수님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평가했던 “나dana엘”이라고 불렀다(正岩記念論叢編纂委 1987, 34). 또한 김명혁은 박윤선의 삶을 “겸손과 진실의 인격”이라고 요약하면서 “그의 얼굴에는 항상 잔잔하고 순박한 소년의 미소가 깃들어 있었고 가식이나 꾸밈을 모르는 진실이 풍기고 있었다.”라고 회상한다(합신출판부 1995, 95). 또한 한국에서 사역했던 하도레 선교사는 박윤선을 “내가 가장 아끼고 존경해 마지않았던 그 분”이라고 부르며 그의 인품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그는 나에게 영적인 아버지요, 스승이요, 흠모할 만한 본보기였다. …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계급이나, 명예나 권세에 연연한 적이 없었다. 포근하면서도 외골수적인 단순성이 그의 성품이

라고 할까. 그는 그 자신에게는 지칠 만큼 땀을 요구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항상 관대했다. 그는 진심으로 경의와 관심을 갖고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사람을 대했다. ... 이 같은 그의 성품과 공헌은 해외에까지 온통 소문이 퍼졌다(합신출판부 1995 11-14).

박윤선의 인격에 대하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의 이만열 역시 동일한 평가를 내린다.

박윤선 목사는 평생을 연구하고 저술에 몰두한 학자이면서, 돌아갈 때까지 신학교에서 가르친 교육자요 교회에서 설교한 목회자였다. 그는 학자·교육자·목회자로서보다는 정직과 겸손과 성실로서 그를 아는 분들에게 더 각인된 분이요, 평생을 어린아이 같은 삶으로 살아간 분이다(서영일 2000, 3).

박윤선의 이러한 진실한 인격은 “목회자는 오해를 받으면 오해를 받은 채 죽어라”, “큰일을 꿈꾸지 말라”, “하나님의 일은 요술이나 도박과 같지 않다”; “목회자에게는 진실이 알파와 오메가이다”와 같은 목회자들의 삶에 대한 그의 여러 잠언들에도 나타난다(합신출판부 1995, 270-271). 박윤선의 인격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토록 진실했다면 우리도 이런 측면에서 한국교회에서의 박윤선의 인격적인 영향력을 손봉호처럼 다음과 같이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박윤선 박사님께서서는 학문이 경건으로 이어지고 경건과 온전히 융화되어 있었다. “이론”과 “실천”은 그에게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었고, 신학과 신앙이 혼연일체를 이루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를 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감화를 끼쳤고, 한국 교회 어느 지도자보다 더 실질적이고 더 큰 영적 권위

를 행사하였다(합신출판부 1995, 119).

말씀의 종으로 한평생 진리를 연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직시하며 회개와 간구, 그리고 용서와 중보의 기도에 힘썼던 박윤선의 인격이 이처럼 진실했기에 그 인격을 통과해서 전달되는 그의 말의 힘과 영향력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이러한 진실한 인격으로 그는 한국교회의 신학생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성화된 인격, 진실한 인격을 요구했다.

본 대학 교수이며 세계적 주경신학의 권위자이신 박윤선 박사께서 지난 11월 19일 21시 20분 서북항공기편으로 200여명 출영객의 석별의 정을 아쉽게 나누며 김포공항을 떠났다. 떠나기 앞서 공항 대합실에서 가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가시면 다시 돌아오 시기가 어려울 것인데 총신생들에게 주실 말씀이 없습니까? 하니 박사님은 눈을 지긋이 감고 그 특유의 인상을 지으시고, 성경 잠언 19:1 말씀을 읽으시고 성실하고 진실하라고 하시며 세상일에도 진실해야 하거늘 하물며 우리들이라,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니 매사에 성실하며 진실하라고 말씀하셨다(총신대보 75.1.15.).

신학도들이 재학 시절에 영화(靈化)방면, 즉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격이 되어지기까지는 신학교 훈련이 절대로 필요하다. 혹시 잘못 생각하기를, ‘신학도들이 학교에서는 지식만 배우고 졸업 후에 실제로 목회하면서 힘쓰는 중에 그들의 인격이 점차 영화되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겠지...’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학생 시절에 영화 방면의 체험이 없이 지식만 가지고 교문을 나서게 되는 때에는 인간인지라 배운 것도 있고, 원고도 있고, 교재도 있음으로 그 실력으로써 목회

하다 보면 세월을 허송하기 쉽다. 즉,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을 하지 못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목회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보다는 도리어 해를 끼칠 우려가 많은 것이다 (박윤선 1997, 152-53)

우리나라 교회에는 지금 외국 선교운동이 싹튼다. 우리의 선교사들은 참으로 부활 신앙으로 사는 인물이어야 하고 부활의 복음과 생사(生死)의 운명을 같이하는 진실한 인물이어야 된다. 우리가 무엇으로 다른 민족들 가운데 가서 빛을 발할 것인가? 우리는 지식으로 다른 민족보다 우수한 것도 없는데 오직 백절불굴의 진실한 신앙인격만이 소유해야 된다. 진실한 인격은 전도자의 생명이다(박윤선 1979.4.17).

진리의 종, 기도의 사람, 진실된 인격자로서의 박윤선의 모습이 목회신학자로서 갖추고 있었던 그의 준비에 해당한다면 앞으로 살펴볼 박윤선의 모습들은 그러한 준비를 거친 탁월한 목회신학자의 사역 방향으로서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

#### 4. 통합된 신학자

목회신학자로서 갖추어야 할 말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건의 능력 그리고 인격적인 감화력을 갖추었던 박윤선은 이러한 그의 모든 신학과 신앙과 인격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통전적인 신학, 즉 목회신학을 추구했다.

먼저, 그에게는 모든 신학분과가 통합되었다. 그에게는 성경신학이나 조직신학 실천신학 교회사 등의 전반이 소화되어 있었고 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통전적인 신학교육은 본격적인

그의 첫 교수 사역지였던 고려신학교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1946년 9월부터 1960년 10월까지 부산의 고려신학교의 교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를 놓는다. ... 그는 그의 전공과목인 성경주석 뿐만 아니라 변증학, 조직신학, 교회사 등 신학 전반에 걸쳐서 뜨겁게 외쳤다(함신출판부 1995, 375).

다음으로, 그에게는 신학과 목회가 통합되었다. <Ⅲ장 목회신학자로서의 사역>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박윤선은 항상 신학교수와 목회사역을 병행하였다. 그에 의하면, 신학공부를 해도 그 학문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어야 하고, 신학교 교수들도 가급적 목회사역을 병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때에만 그들이 생명력 있는 신학강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신학자는 신학 교수뿐 아니라 반드시 목회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신학 교수들도 목회를 알아야 된다. 즉, 교수가 목회 경험이 있어야만 신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하는 방법과, 신자들을 영혼 상대로 접촉하여 성경 말씀을 먹여주는 일을 바로 하도록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다. 신학 교육은 지식 전달과 함께 생명력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한 지식 전달로 족한 여학시간에도 교수가 생명력 있는 강의를 해야 된다. 목사 후보생을 키우는 신학교 교수는 자신도 목사이니만큼, 목사는 목회를 알아야 한다. ... 확실히 나의 목회 경험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 그러므로 누구든지 참으로 신학 교수를 하려면 목회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사가 목회를 해야만 자신의 신앙생활도 건조해지지 않고, 또 영혼 상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성령의 감화와 인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

을 통하여 확신하게 된다(박윤선 1997, 149).

만약 신학교 교수들이 교수 사역과 목회 사역을 동시에 감당하기 힘들다면 먼저 목회라도 경험하고 나서 교수 사역에 임해야 한다. 그래서 박윤선은 “신학자는 신학 교수뿐 아니라 반드시 목회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하면서도 “누구든지 참으로 신학 교수를 하려면 목회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박윤선은 자신의 이러한 비전을 합동신학교에서 성취하였다.

그가 합동신학교를 설립하고 학장이 되었을 때에 그는 교수가 되기 위한 자격으로 3년 이상의 목회 경력을 요구하였다. 그의 이러한 소망에 따라 그 신학교는 그러한 규정을 두었다. 그가 신학교가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학자나 기독교 지성인을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목회자를 훈련시킴으로 교회를 봉사하게 하는 기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서영일 2000, 77).

신학과 목회의 통합은 단순히 신학교의 학자들이 교회의 목회를 알아야 한다는 것만이 아니다. 신학교의 학자들은 신학교 강의실에서 또 하나의 설교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수들의 강의는 설교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박윤선은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소속의 신학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우리의 말씀 선포 작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립되어야 한다. 즉,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신학 강의를 설교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된다. 신학자들이 지식만 전달하는 데서 벗어나면 그것은 세속화된 교사로 전락된 것이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면 그 작업의 과정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敬畏)해야 되며, 영감(靈感)을 받아야 된다(박윤선 1984, 3-4).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각 신학분과가 더욱더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그 분야의 더욱더 새로운 연구에만 매진하고 있는데다가 그럴수록 그 신학들은 목회의 현장과는 더더욱 괴리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신학계에서, 다양한 신학이 통전적으로 그 삶에 녹아들어 철저히 목회현장을 섬기는 신학연구와 신학교육이 되기를 힘썼던 박윤선의 비전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추구해야할 바람직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5. 교회의 개혁자

기록에 의하면(송전80년사편찬위 1979, 344-49), 박윤선이 송실전문학교에 수학하고 있던 시절인 1929년 11월 3일에, 광주에서 학생만세시위운동이 터지게 되고 전국 각지에까지 파급되어, 송실전문학교 학생들도 연맹휴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가운데, 1930년 1월 21일에 송실전문학교를 필두로 여러 학교가 만세를 부르게 되었는데, 송실전문학교 학생은 모두 67명이 평양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갔다. 일제 경찰들은 송실전문학교 기숙사를 포위하고 남아있던 기숙사생들을 모두 검거했기 때문에, 70명이던 기숙사생은 한 명도 남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7명이 퇴학당했고, 28명이 정학에 처해졌다. 박윤선이 송실전문학교에서 “4년간 공부하고 무사히 졸업”하였다고 하지만(박윤선 1980.4.5.), 사실 그도 “만세를 부르는 일에 참여하여, 만세를 부르고 약 29일간 감옥에

구금이 되었다”(최미희 1984, 17).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사회 참여는 박윤선의 이후의 삶 속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박윤선은 교회개혁가였지 사회운동가는 아니었다.<sup>23)</sup>

교회의 개혁자로서의 박윤선의 면모는 먼저 회개운동을 통한 영적인 부흥과 개혁운동으로 표현되었다. 박윤선의 생애 가운데 허락된 이러한 회개의 역사는 대표적으로 고려신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부산에 피난 온 목회자들 가운데서, 또한 총신대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일어났다.

첫째로, 자신의 몸도 아끼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고려신학교에 능력 있게 가르치기 위해 헌신하였던 박윤선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회개운동을 이 학교에 일으키셨다.<sup>24)</sup>

6·25동란이 발생하기 직전에(1951년)<sup>25)</sup> 고려신학교에는 큰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어느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믿으면서 그때의 역사적 사실에 관련된 본인의 이야기를 한 두 마디 할 수밖에 없다. 경건회 시간에 나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데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요한

---

23) 물론, 박윤선에 대한 김명혁의 다음과 같은 소개는 사회개혁에 관한 박윤선의 보다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박 목사님은 한국 교회 안에 개혁주의 신앙이 무엇이며 개혁주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히 보여 주신 분이였다. 칼빈주의 신학은 ... 세상사에 무관심한 반문화주의가 아니라 사회문제와 구체 사역 등에 적극적 관심을 나타내는 문화변혁주의인 것을 가르쳐 주셨다(합신출판부 1995, 95).”

24) 고려신학교에서 회개운동이 벌어질 때, 학교는 우남공원(현 용두산공원) 올라가는 중턱에 자리한 산업은행 기숙사로 사용되던 이층적산 건물이었고, 강의실은 다다미 방이었다(심군식 1996, 93;101;116).

25) 1951년이던 6·25 동란이 발생한 후이므로 박윤선은 연도를 잘못 기억한 것이다. 「성경과 나의 생애」에는 “1950년, 6·25 동란이 발발하기 전에...”라고 수정되어 있다.

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을 근거하여 설교한 뒤 학생 중에서 한사람만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 중에 한사람이 기도를 했다. 그 기도는 참으로 눈물겹고 진실한 내용이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곧 이어 다른 학생이 간절한 기도로 회개하니 그 뒤를 이어 많은 학생들이 계속 기도하게 되었는데 전체가 기도할 분위기로 딱 찼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하라고 했더니 한사람씩 앞에 나가 죄를 자복하는 기도가 터졌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공부를 전폐하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니 학생들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한사람씩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니 상상도 못할 죄들을 모두 토하였다. 이렇게 종일 기도를 갖다가 이튿날 다시 모여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는 일로 일관하여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하자 그 운동이 고등성경학교(부민동에 소재)에도 영향을 끼쳐 같은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 은혜의 역사가 고려파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 한다(박윤선 1980.5.17.).

둘째로, 고려신학교와 고려 고등성경학교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지 몇 달도 못 되어 6·25전쟁이 일어났고, 그 때에도 박윤선을 도구로써 동일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많은 피란민들과 피란 교역자들이 부산으로 찾아오게 되었다. 고려신학교의 광복동 교사는 피란민 수용소 같이 되었고, 초량교회(한상동 목사 시무) 예배당도 마찬가지였다. 그해 8월 중에는 전국 교역자 수양회가 초량 교회당에서 열렸는데 박형룡 박사(그때에는 서울 장로회신학교 교장)와 내가 함께 강사였다. 새벽기도회 당번으로 설교를 마치고 나는 교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다. 이른 봄에 일어났던 고려신학교의 회개운동과 같이 성령의 역사로 많은 목사님들이 계속 뒤이어 회개하는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 교역자들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서로 먼저 기도하려 했기 때문에 그때에 일주간 집회하려던 것을 10일간으로 연장하게 되었다

(박윤선 1986.9, 20).

셋째로, 회개의 역사는 총신대학의 혼란기에 총신에서도 재현되었다.

1980년 3월부터 총신에서 소요사태가 일어났을 때 박 목사님은 5월 23일부터 총신 강당에서 밤마다 특별기도회를 인도하셨는데 하루는 점심, 저녁도 드시지 않고 밤 자정이 넘도록 계속 강단에서 기도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60여명의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한 사람씩 일어나 “내가 교수를 내어 쫓으려 했습니다. 차를 뒤집어엎은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여기 죄인이 있습니다.”라고 부르짖으며 회개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합신출판부 1995, 231).

그러나 박윤선이 교회개혁을 위한 이러한 소극적인 방법만 사모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설교와 문서사역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교회의 병폐들을 개혁해 나가고자 했다. 먼저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다음의 일화부터 시작하여 한국교회와 그 지도자들을 향한 그의 개혁의 메시지를 들어보자.

선병문 목사가 총회신학교 졸업 2개월을 남겨 놓고 박윤선 목사님에게 한 곳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었다. 그 부탁을 받은 박윤선 목사는 “수원에서 더 남쪽 시골에 한 교회가 있으니 지금 가면 거기서 목회할 수 있다”고 제안하셨다. 그때 선병문 목사는 시골 가기가 싫어서 “서울에는 목회지가 없느냐”고 다시 물었는데 그때 박 목사님께서 조용히 계시더니 “그래 한 곳이 있지, 장승백이에 쌀가계가 하나 났는데 연탄과 함께 팔면 먹고는 살 것이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을 들은 선병문 목사는 큰 감명을 받았고 머리 둘 곳을

찾지 못했다(합신출판부 1995, 272).

박윤선에게 있어서 목회사역지의 형편을 보고 목회지를 택하는 목회자는 목회로 밥벌이하려고 하는 자에게 불과했던 것이다. 그런데 개 교회 목회자들의 세속화보다 그가 더욱 크게 우려하고 비판했던 것은 교단의 전체적인 세속화였다. 박윤선은 “무엇이 개혁되어야 하는가?”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신학정론의 권두언으로 세 번 연속 연재하였다. 그의 말년에 마지막으로 외친 개혁의 메시지였기에 이 글들에서 교회의 개혁자로서의 그의 음성을 가장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글에 나타난 두 병폐는 물량주의와 사제주의(교권주의)였다.

1. 물량주의를 버리자. 물량주의는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은 거짓 스승을 삼가라고 하였고(마 7:15; 행 20:29),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하였다(딤후 5:22). 그런데 현대 교회는 무자격 교역자라도 대량 배출하는데 있어서 두려움과 주저함이 없다. ... 물량주의의 결과는 무자격한 교역자들이 탕수와 같이 교계에 쏟아져 나오는 불행이다. 사명감은 없이 육신의 생계를 위하여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말할 경우, 그는 주님의 교회를 자기의 종교업체(業體)로 만들 가능성이 짙다. ... 2. 사제주의를 버리자. ... 만인 제사장주의는 참된 기독교의 특징이다. 목사가 교회의 인도자인 것은 성경적이다. 그러나 그도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다른 신자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자이며, 받은 은사대로 말씀 증거에 수종드는 입장이다(박윤선 1986.11, 218-19).

“물량주의와 사제주의”에 이어서 그는 한국교회의 개혁되어야 할 병폐로서 “다시 두 가지를 첨부”하고 있다(박윤선 1987.5[2], 2-3). 이것은 ‘사역의 평등성 상실’과 ‘구제사업의 결핍’이다.

1. 사역상 평등의 상실. 목사는 교직의 대표이고 장로는 교회의 대표이다. 양자(兩者)의 치리 사역은 동등이다. ... 오늘날 목사는 장로보다 높은 자처럼 자처하는 경향이 있고, 장로는 목사에게 수종들 자로 스스로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이 점에 있어서 목사는 경성하여 장로를 존중히 하고 조심하면서 함께 같은 권리로 사역해야 된다. 또한 목사나 장로가 집사에 대해서도 역시 그 직분(집사직)이 하급(下級)인 것처럼 잘못 생각한다. 그래서 제직회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목사, 장로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 2. 구제사업의 결핍.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사회 참여에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너무 등한하다고 생각된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 구제에 대하여 얼마나 간곡히 부탁하셨는가?(눅 12:33) ... 기독교의 구원 운동은, 전인 구원(全人救援)을 목표로하기 때문에 그 영적 구원 운동에서 물질적 구제를 제외시키지 아니한다.

박윤선이 앞의 네 가지 내용을 어느 정도 포함하여 마지막으로 “우리 교계에서 개혁하자는 것”은 교리와 생활의 불일치와 교역자들의 정치성, 그리고 물량주의로 인한 교계의 복잡성이었다(박윤선 1988.7).

첫째, 무엇보다도 이론과 실제의 측면에서 고칠 것이 있다. ... 혹시 우리가 좋은 말과 좋은 교리를 표방만 하고 실생활에 있어서는 진리보다 아집(我執)과 외식(外飾)행위로 일관하고 있지 않는지?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의 교회 사역에 있어서 사제주의(司祭主義)가 판을 치고 있다. 사제주의는 비성경주의이고 마귀의 역사이다. ... 둘째, 교회의 행정에 있어서도 고칠 것이 있다. 오늘 교계의 교직자들이 성경적으로 시행하려는 노력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달(榮達)을 목표로하고 행하는 실례들이 너무 많다. 즉, 교역자들의 정치성을 들 수 있으니, 그 정치성이란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

와 반대되는 것이다. … 셋째, 현대 교계의 복잡성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 교계가 복잡하다는 것은 교회의 지도 체계의 동질성(同質性)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 교단 안에서도 동질성이 없는 원인은 교역자 양성 기관이 아직도 부실(不實)한 데 있다. … 리더십의 동질성을 확보하지 않고 다수 영입(多數迎入) 일변도로 흘러간 교단들이 있다면 그 교단들은 별 수 없이 복잡해진다.

교단이 규모 없이 대형화되고 신학교 안에서도 바른 신학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되는대로 흘러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성실히 목회하는 목회자들보다 자신의 밥벌이를 위해서 외식과 권위주의와 탐욕으로 목회하는 종교업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결국 한국교회는 이 땅에서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한 유명 일간지의 최근의 다음과 같은 안타까운 소식은 박윤선의 우려가 오늘날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으며, 교회 개혁을 향한 박윤선의 목소리를 지금이라도 더 늦기전에 한국교회가 청중해야 함을 말해준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검사와 경찰관을 사칭해 송파구 일대 노래방에서 업주들에게 돈을 뜯는 혐의(공갈 등)로 목사 이모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의 신학교 후배인 유모씨(38) 등 다른 목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송파구 일대 노래방 50여 곳에서 검사와 경찰관을 사칭해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업주들로부터 2000여 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올해 초까지 경북지역에서 목회 활동을 했지만 재정이 악화돼 교회가 문을 닫은 데다 최근에는 카드 빚도 쌓여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동아일보 2003.10.31.).

또한 그의 헌법 주석을 보면 한국교회를 향한 그의 개혁의 방향을 더욱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여교역자와 강단문제”이다. 여성 안수에는 분명한 반대를 표하면서도 여성의 강단사역을 확보해주는 박윤선의 성경적인 안목은 다음과 같다.

신약 성경에 있는 대로 여자로서 집사 된 자는 있으나(롬 16:1-2) 남녀를 다 주관하는 장로나 목사가 된 사람은 없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만한 문제이다. 인권(人權)에 있어서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지만(벧전 3:7), 천직(天職)은 다르다. 본래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지음을 받았고(창 2:20), 주관자의 직분을 받은 것은 아니다(특별히 인류의 범죄 이후. 창 3:16). 그러므로 여자로서 교회를 주관하는 직분은 받지 못하게 되었다(박윤선 1983[1], 105).

이어서 그가 인용하는 성경구절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여성 사역자들을 비하하는 근거로,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바울의 신학을 비판하는 근거로 왜곡되어 이해되어지는 고전 14:34(“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과 딤후전 2:11-12(“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말씀이다. 이 구절들에 대한 박윤선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이 말씀은 여성의 봉사 활동을 봉쇄함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들을 바로 해석해야 된다. 이 구절들의 의미는, 여자로서 교회에서 남자를 주관하는 입장에 서서 교훈하는 것을 금한 것뿐이다. ... 오늘날 우리 교계에 여자가 강단에 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의 할 말은 이렇다. 성경 말씀은 주로 여자의 가르칠 대상을 문제시한 것뿐이고, 그 교훈의 장소나 방위(方位)나 시설(강단)이 문제시 된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여자는 여자들을 교훈의 대상으로 정한 집회에서 필요하면 공식 강단에도 설 수 있다는 것이다(박윤선 1983[1], 105).

이뿐 아니다. 박윤선에 의하면 여성 사역자들은 같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와 가르침뿐만 아니라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자리에서도 강단 위에 설 수 있다. 한국교회의 여교역자들에 대한 비성경적인 편견과 차별에 대한 박윤선의 개혁의 메시지는 다음의 네 가지로 결론 내려진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몇 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 (1) 여자가 공석에 서서 여자들을 가르칠 때에 남자들이 참석하여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말씀의 은혜는 언제나 남자에게만 있고 여자에게는 없다고 할 수 없다. 교회는 여성의 봉사 분야를 성경적으로 많이 개발해야 된다. (2) 예배를 주장하는 남자가 없거나 설교할 남자가 없는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여자가 당회장이나 당회의 허락으로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할 때에 남자들도 동참(同參)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3) 여자로서 복음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증거하는 일은 남자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여자로서 남성에 대한 예의를 갖출 따름이다. … (4) 믿음과 덕이 있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여교역자는 “돕는 사역”(고전 12:28)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Jus divinum)이다. 은사를 받은 것은 봉사할 권리를 받았다는 것도 내포한다. … 그러므로 여교역자의 하는 일에 대하여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도할 수는 있으나 고자세로 간섭할 수는 없는 것이다. 피차 은사가 다를

뿐이다(박윤선 1983[1] 106-107).

이처럼 박윤선에게 여성은 남성과 구분된 존재일 뿐 그 존귀함에 있어서는 동등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교회를 주관하는 직분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강단에서의 그의 말씀사역과 교회 공동체에서의 여교역자들만의 독특한 은사들을 억압하신 것이 아니다. 이러한 박윤선의 성경적인 통찰은 오늘날 여전히 여교역자들을 비성경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현실에 매우 갈급한 메시지이다. 다음의 사건은 여교역자들에 대한 이러한 비성경적인 시각이 한국교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한 단면이다.

현 교단 총회장인 임태득 목사는 지난 12(수) 총신대(학부) 채플 시 설교에서 “여자들이 기저귀 차고 강단에 올라가? 안돼.”라는 여성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총신대 총학생회(회장 김성수)와 총여학생회(회장 이성심)는 일제히 반발하였으며, 이 소식은 곧 여성계로까지 알려져 크게 확대되고 있다. ... 이러한 조짐으로 31개의 여성단체들은 지난 20일(화)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태득 총회장의 발언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교계 성차별을 강력히 비판하며 총회장직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한편 신대원 여원우회(회장 황영아)도 총회장의 발언을 “여성안수 문제와 여성의 존엄함의 문제를 구분하지 못한” 비성경적인 발언으로 일축하고, 한국교회 전여성도 앞에 사죄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총신원보 2003, 11.25.).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20년 전의 박윤선의 외침에 줄곧 귀를 막고 살아왔고 그로 인해 지금 더더욱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게 불만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손봉호

는 교회의 이러한 비성경적인 모습들에 대한 박윤선의 개혁자로서의 메시지가 흔들림 없는 “전통적 보수 신학에 대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화된 인격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열린 마음”으로 인해 가능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윤선 목사님은 그의 교육적 배경, 연세, 신학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전통적 보수 신학에 대한 확신에는 흔들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쉽게 빠지는 독선과 화석화된 ‘장로의 유전’으로부터 해방되어 있었다. 가끔은 그보다 훨씬 더 젊은 신학자들보다 더 현대적인 면모를 가지고 계셔서 오히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라는 주장을 변호해 주셔서 필자가 (고신) 총회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고, 여전도사님이 강단에서 사경회를 인도할 수 있다고 충고해 주시기도 했다(합신출판부 1995, 120).

성경과 교회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 된 교회 공동체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당신의 택한 종들을 그 도구로 사용해 오셨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의 지도자는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이다. 박윤선이 그랬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능력을 힘입어 회개운동을 통한 참된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았고, 그 절대적인 권위를 힘입어 문서사역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교회를 개혁하고자 힘썼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개혁되는 교회를 꿈꾸었던 박윤선의 이 외침들은 성경을 떠나 권위주의와 물량주의의 길로 타락하기 시작하던 25년 전 당시의 한국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타락의 쓴 열매를 맛보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교회에서는 더더욱 절실한 참된 개혁과 부흥의 도구일 것이다.

## V 결론 : 한국교회에서의 박윤선의 가치

박윤선은 지금 우리 곁에 없다. 그는 1988년 6월 30일 오전 6시 3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고(합동소식 1988. 7.), 그의 묘소는 그가 생애 마지막으로 개혁신학을 입술과 삶으로 부르짖었던 합동신학교의 뒷동산에 마련되었다. 그의 겸손한 삶을 꼭 빼닮은 그의 무덤은 가로 1미터 세로 2미터 정도 되는 직사각형 대리석 태두리 위로 30cm도 채 안되는 높이로 얇게 솟은 흙무덤이 전부이다. 한국교회를 위해 한평생 참다운 목자로 섬긴 후에 많은 이들의 눈물의 박수를 받으며 마감한<sup>26)</sup> 그의 아름다운 생애는 그 무덤과 함께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

그렇다면 여전히 그의 삶과 가르침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박윤선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무엇인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박윤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그를 존경하는 한 제자는 박윤선이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 내어놓을 수 있는 뛰어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를 어느 교파나 교단에 속했던 한 학자로서, 역사의 뒤안길에 묻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의 신학과 신앙과 삶을 오늘에 되살려서 한국 교회의 대표적 인물로 재조명해야 하리라고 본다. 뿐

---

26) 한국은 물론이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물결은 미국에까지 이어졌다. 1988년 7월 11일에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추모예배가 열렸고, 12일에는 나성한인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졌으며, 24일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상향중앙교회에서 총신과 고신 동문회 주관으로 추모예배가 드려졌다(합동소식 1988.8.).

만 아니라 미국교회가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를 내어 놓고 영국 교회가 스펀전(C.H. Spurgeon)을 자랑하고, 화란교회가 카이퍼(A. Kuyper)와 바빙크(H. Bavink)를 자랑한다면, 한국 교회가 세계교회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인물은 역시 박윤선 박사이다(합신출판부 1995, 372).

정말 그런가? 진정 박윤선은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나 영국의 청교도들,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처럼 시대의 간격을 넘어 조국교회에서 그 삶과 사역이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계승되어야 할만한 인물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주석가나 성경신학자, 조직신학자와 같은 일면으로만 박윤선을 평가하던 기존의 일차원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위에 든든히 서 있는 탁월한 목회신학자로서의 그의 인격과 사상을 고찰해 보았다. 박윤선의 성장과정과 사역은 모두 한국교회의 목회현장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진행되었고, 그의 개혁주의적 신학과 삶은 철저히 교회를 섬기는 목표 하나를 위해 통합되었다. 박윤선은 그의 모든 인격화된 신학으로 오직 목양을 위해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했던 한국교회의 진정한 개혁주의 목회신학자였다.

주경신학자나 조직신학자 같은 일면으로만 볼 때 박윤선은 한국교회의 짧은 역사 속에 있었던 시대적인 한계를 가진 몇몇 소영웅들 중의 한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나 박윤선의 진면목이 “인격화된 신학으로 오직 목양을 위해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했던 한국교회의 진정한 목회신학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안에서 박윤선처럼 목회 현장을 위한 개혁주의적인 경건과 학문 그리고 인격도야에 몸부림쳤던 인물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그는 조나단 에드워드나 청교도들,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처럼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계속 새롭게 연구하고 계승해 가야 할 한국교회의 자랑이요 보화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또한 진정 그렇다면 지금까지 박윤선을 오해하고 있었거나 그에 대해 무관심했던 목회자들과 학자들은 「성경주석」을 비롯한 그의 수많은 저술들과 설교들을 한국교회를 위한 목회신학의 차원에서 새롭게 연구해야 할 것이고, 진정한 개혁주의 목자의 삶과 가르침을 갈망하고 있는 오늘날의 목회 후보생들과 평신도들에게도 목회신학자 박윤선의 삶과 사상은 한국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낙심해 있던 그들의 지친 영혼에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을 심어 줄 것이다.

갈수록 교회는 내적으로 타락해가고 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과 같은 많은 인간적인 부족함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한평생 말씀과 기도로 성화에 힘쓰며 주님과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며 살았던 박윤선과 같은 많은 참 목자들이 우리의 신학교와 교회에서 계속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이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매순간 더욱 새롭게 헌신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 중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대적 사명에 순종할 것인가? 박윤선이 한평생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히 여기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윤선. 1954.6. “화란(和蘭)에서 돌아온 박교장의 귀국담.” 파수군.
- \_\_\_\_\_. 1968. 성경주석 - 창세기·출애굽기. 서울: 영음사.
- \_\_\_\_\_. 1970. 영생의 원천. 서울: 영음사.
- \_\_\_\_\_. 1971. 성경신학. 서울: 영음사.
- \_\_\_\_\_. 1977.9.14. “聖經과 나.” 충신대보.
- \_\_\_\_\_. 1979.4.17. “復活節의 意味.” 충신대보.
- \_\_\_\_\_. 1980.3.22. “나의 생애와 신학[2].” 크리스찬신문.
- \_\_\_\_\_. 1980.3.29. “나의 생애와 신학[3].” 크리스찬신문.
- \_\_\_\_\_. 1980.4.5. “나의 생애와 신학[4].” 크리스찬신문.
- \_\_\_\_\_. 1980.4.12. “나의 생애와 신학[5].” 크리스찬신문.
- \_\_\_\_\_. 1980.4.19. “나의 생애와 신학[6].” 크리스찬신문.
- \_\_\_\_\_. 1980.4.26. “나의 생애와 신학[7].” 크리스찬신문.
- \_\_\_\_\_. 1980.5.3. “나의 생애와 신학[8].” 크리스찬신문.
- \_\_\_\_\_. 1980.5.17. “나의 생애와 신학[9].” 크리스찬신문.
- \_\_\_\_\_. 1980.5.24. “나의 생애와 신학[完].” 크리스찬신문.
- \_\_\_\_\_. 1983[1]. 헌법 주석. 서울: 영음사.
- \_\_\_\_\_. 1983[2]. “聖經과 神學.” 聖經과 神學. 서울: 정음출판사.
- \_\_\_\_\_. 1984. “신본주의.” 聖經과 神學. 서울: 엠마오.
- \_\_\_\_\_. 1986.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聖經과 神學. 서울: 엠마오.
- \_\_\_\_\_. 1986.5. “나의 신학과 나의 설교.” 신학정론. 제7권.
- \_\_\_\_\_. 1986.9. “고신 초창기와 ‘나’.” 월간고신.
- \_\_\_\_\_. 1986.11. “무엇이 개혁되어야 하는가?” 신학정론. 제8권.
- \_\_\_\_\_. 1987.5.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생활.” 신학정론. 제9권.
- \_\_\_\_\_. 1987.5[2]. “무엇이 개혁되어야 하는가?” 신학정론. 제9권.
- \_\_\_\_\_. 1988.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http://www.yunesunpark.pe.kr/>
- \_\_\_\_\_. 1988.7. “무엇이 개혁되어야 하는가?” 신학정론. 제11권.
- \_\_\_\_\_. 198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울: 영음사.

- \_\_\_\_\_. 1997. 성경과 나의 생애. 서울: 영음사.
- \_\_\_\_\_. 2003. 개혁주의 교리학. 서울: 영음사.
- 총신대보. 1975.1.15. “박윤선 박사 渡美”.
- 승전80년사편찬위. 1979. 승전대학교 80년사. 서울: 승전대학교출판부.
- 信聖校史編纂委. 1980. 信聖學校史. [발행지불명]: 信聖學校同窓會.
- 최미희. 1984. “박윤선 목사의 생애와 사상.” 합동신학원 졸업논문.
- 正岩記念論叢編纂委. 1987. 敬虔과 學問. 서울: 靈音社.
- 합동소식. 1988.7. “正岩 박윤선 목사 召天.” 합동소식.
- \_\_\_\_\_. 1988.8. “미주지역, 박윤선 목사 소천에 잇달은 추모예배.” 합동소식.
- 오병세. 1988.8. “말씀의 사자 고 박윤선 목사.” 월간고신.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89. 한국 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 정성구. 1991. 박윤선목사의 신학과 설교 연구. 서울: 한국칼빈주의연구원.
- 김요나. 1991. 총신90년사 (1901 ~ 1991). 서울: 양문.
- 권성수. 1991. 성경해석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 한승홍. 1993.1. “박윤선의 신학사상(I): 그의 생애를 중심으로.” 목회와신학.
- 정훈택. 1993. 열매로 알리라.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 기독교 학술원. 1993. 박윤선 신학과 한국신학. 서울: 기독교 학술원.
- 합신출판부. 1995. 박윤선의 생애와 사상. 수원: 합신출판부.
- 심군식. 1996. 박윤선 목사의 생애. 서울: 영문.
- 영음사. 1999. 정암 박윤선 목사 저서 색인집. 서울: 영음사.
- 서영일. 2000.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황성철. 2000. 개혁주의 목회신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 \_\_\_\_\_. 2002. “개혁주의 목사론.” 미출판. 용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기독신문. 2002.10.26. “박윤선 신약성경주석 녹음테이프 무료전달.”
- 동아일보. 2003.10.31. “목사가 경찰사칭 노래방서 돈 뜯어.”
- 총신원보. 2003.11.25. “여성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총회장.”
- Justin Sung-Un Park. [n.d.] “Teaching, Preaching and Writing.”  
<http://www.yunesunpark.pe.kr/>